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연구

유 학 열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
| 1) 연구 배경 | 1 |
| 2) 연구 목적 | 2 |
| 3) 정책 활용(기대 효과) | 2 |
| 2. 연구 범위와 방법 | 3 |
| 1) 연구 범위 | 3 |
| 2) 연구 방법 | 3 |
| 3. 연구 흐름과 보고서 구성 | 4 |
| 4. 선행연구 검토 | 6 |
| 제2장 관련 이론 검토 | 9 |
| 1. 공동체(커뮤니티) 개념 | 9 |
| 2. 농촌마을 커뮤니티 개념과 기능 | 10 |
| 3.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개념 | 11 |
| 4.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저하에 따른 문제점 | 12 |
| 제3장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증 분석 | 15 |
| 1. 분석 개요 | 15 |
| 1) 분석 방법 | 15 |

| | |
|----------------------------------|----|
| 2) 분석대상, 규모, 내용 | 16 |
| 2.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분석 결과 | 17 |
| 1) 조사 대상 마을의 기본 개요 | 17 |
| 2)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조직 존속 실태 | 22 |
| 3)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태 | 31 |
| 4) 농촌마을 공동재산, 시설 활용 실태 | 34 |
| 5) 농촌마을 사회적자본 실태 | 37 |
| 6) 농촌마을 공동체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실태 | 38 |
| 7) 농촌마을 주민 심층인터뷰 결과 | 39 |

제4장 국내외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우수 사례 42

| | |
|-----------------------------------|----|
| 1. 국내외 농촌마을 활성화 우수 사례 | 42 |
| 1) 충남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 마을 | 42 |
| 2) 충남 서천군 달고개 모시마을 | 44 |
| 3) 고라초 마을 | 46 |
| 2. 국외(일본) 농촌마을 활성화 관련 지원 정책 | 49 |
| 1) 지역부흥협력대 제도 | 49 |
| 2) 집락지원원 제도 | 50 |
| 3) 아름다운 농촌재생 지원 사업 | 51 |
| 4) 농촌집락활성화 지원 사업 | 52 |
| 5) 시사점 | 52 |

제5장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기본방향과 전략 54

| | |
|---|----|
| 1.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기본 방향 | 54 |
| 1) 외부 주체들과의 적극적,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54 |
| 2) 농촌마을 내 사회적자본 형성이 필요하다 | 54 |
| 3) 농촌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다 | 55 |
| 4) 농촌마을 간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 55 |
| 2.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기본 전략 | 56 |
| 1) 외부 주체들과의 적극적,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 기본 전략 | 56 |

| | |
|---------------------------------------|-----------|
| 2) 농촌마을 사회적자본 형성 전략 | 57 |
| 3)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전략 | 59 |
| 4) 주변 농촌마을 간의 연계 전략 | 60 |
| 제6장 결론 | 62 |
| 1. 연구 요약 및 한계 | 62 |
| 2. 정책 제언 | 63 |
| 참고문헌 | 65 |
| 부록 | 67 |
| 1.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 실태 조사표 | 67 |

표 목 차

| | |
|---|----|
| <표 1-1> 연구방법 | 3 |
| <표 3-1>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증 분석 개요 | 15 |
| <표 3-2> 조사 대상지역 현황 | 16 |
| <표 3-3> 조사 대상마을의 인구, 가구수와 변화 추이 | 17 |
| <표 3-4> 조사 대상마을의 인구, 가구수와 변화 추이(계속) | 18 |
| <표 3-5> 조사 대상마을의 인구, 가구수와 변화 추이(계속) | 19 |
| <표 3-6> 마을 인구와 가구수 변화 규모별 비율 | 20 |
| <표 3-7> 최근 10년간 귀농귀촌 규모별 가구 수 | 21 |
| <표 3-8> 농촌마을 사회적 이익조직 존속 비율(복수응답) | 23 |
| <표 3-9> 농촌마을 사회적 이익조직 존속 규모별 비율 | 23 |
| <표 3-10> 조사 대상마을 사회적 이익조직 존속 실태 | 24 |
| <표 3-11> 조사 대상마을 사회적 이익조직 존속 실태(계속) | 25 |
| <표 3-12> 조사 대상마을 경제적 이익조직 존속 비율(복수응답) | 27 |
| <표 3-13> 농촌마을 경제적 이익조직 존속 규모별 비율 | 27 |
| <표 3-14> 조사 대상마을 경제적 이익조직 존속 실태 | 28 |
| <표 3-15> 조사 대상마을 경제적 이익조직 존속 실태(계속) | 29 |
| <표 3-16>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별 실행 비율(복수응답) | 31 |
| <표 3-17> 조사 대상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태 | 32 |
| <표 3-18> 조사 대상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태(계속) | 33 |
| <표 3-19> 농촌마을 공동재산, 공동시설 보유 실태(복수응답) | 34 |
| <표 3-20> 농촌마을 공동재산, 공동시설 상태 | 35 |
| <표 3-21> 농촌마을 공동재산, 공동시설 활용 실태 | 36 |
| <표 3-22> 농촌마을 주민 심층인터뷰 내용 정리 | 40 |
| <표 3-23> 농촌마을 주민 심층인터뷰 내용 정리(계속) | 41 |
| <표 4-1> 달고개 모시마을 문화행사 현황 | 45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흐름도 5

- <그림 3-1> 농촌마을 사회적자본의 변화 37
- <그림 3-2> 농촌마을 공동체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38

- <그림 4-1> 백석울미마을의 커뮤니티 경제사업 형태 43
- <그림 4-2> 달고개 모시마을의 커뮤니티 경제사업 형태 44
- <그림 4-3> 고라초 기타오씨마을의 마을만들기 위원회 조직도 47
- <그림 4-4> 지역부흥협력대의 사업 효과 49
- <그림 4-5> 아름다운 농촌재생 지원 사업 51
- <그림 4-6> 농촌집락활성화 지원 사업 52

- <그림 5-1> 마을자원찾기, 마을진단 지도그리기 과정의 사례 58
- <그림 5-2> 지원학의 개념 59
- <그림 5-3> 농업유산의 사례 5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1) 문재인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로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의 재생 정책 추진

국토부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¹⁾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뉴딜을 통해 일터, 삶터, 쉼터로서 살기 좋은 농촌지역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급격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업유산 자원, 산림하천 생태계, 농촌마을 커뮤니티 등 농촌자원 발굴 및 보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도 민선 7기 도정책심과제로 ‘농어촌지역 재생사업’을 선정하는 등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농촌마을 고유 기능의 상실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향후 농촌마을 존속 여부도 불투명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치 기능, 공동체 기능, 생태환경 보전 기능, 전통문화 계승 기능 등 오래 기간 전승되어 온 농촌마을 고유의 기능들이 저하되었거나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듯 농촌마을 기능들이 상실됨에 따라 농촌의 ‘2차적자원’²⁾ 소멸, 야생동물 피해 증가 및

1)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로 2018년 8월에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99곳을 선정함
2) 2차적자연이란 산림, 2차 초원, 농경지 등 인간과 자연의 오랜 기간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온 자연을 말함. 즉 원생 자연에 인간의 인위적 간섭(관계)이 있었던 자연을 의미함

휴경지 증가 등에 따른 농촌마을 고유 자연 환경과 경관도 파괴되고 있다.

이렇듯 과소화, 고령화에 따른 농촌마을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심각하며, 커뮤니티 해체 또는 커뮤니티 기능 저하에 의해 농촌다움(Rurality)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3)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 활성화 정책 대안 마련 시급

그동안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부분이 정주환경 개선, 소득시설 조성, 복지문화 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지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하드웨어 지원 위주의 농촌마을 개발에서 벗어나 농촌마을 고유의 기능과 농촌다움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회복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 이유는 농촌마을의 다양한 기능들을 유지, 보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마을 커뮤니티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농촌마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커뮤니티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촌마을 커뮤니티 개념과 기능에 대해 정리 한다. 둘째, 충청남도 농촌마을 공동체 실태에 대해 실증 분석한다. 셋째, 저하된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정책 활용(기대 효과)

본 연구결과를 의해 기대할 수 있는 정책효과로서는 첫째,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농촌마을 존재의 필요성을 객관적이고 논거를 제시한다. 셋째,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가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시간 범위는 2018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며, 정책 목표연도는 2019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공간 범위는 충청남도 15개 모든 시군이 포함되며, 우수 사례 분석의 경우 충청남도 지역을 벗어나 국내외 농촌마을로 확대하였다.

내용 범위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정리,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실태(조직, 활동, 공동 자산 활용 등) 분석,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국내외 우수 사례 검토,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① 국내외 관련 문헌 조사, ② 전문가 자문, ③ 설문조사(집합설명식, 직접대면식) 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1-1〉 연구 방법

| 구분 |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 설문조사 |
|----|---|--|---|
| 목적 | -농촌마을 커뮤니티 개념과 기능을 파악 -국내외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분석 | -연구의 기본틀 설정 자문 -연구방법론 설정 자문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자문 |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현황 파악 - 충청남도 농촌마을 공동시설 현황과 활용 실태 파악 |
| 방법 | -국내외 관련 분야 논문, 정책보고서, 서적 등 리뷰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개별 방문 자문 | -행정리 이장 대상 설문조사(집합설명식): 81개 마을 -마을주민 대상 심층 설문조사(직접대면식): 5명 |
| 기간 | 18년 5월~7월 | 연구기간 내 수시 | 18년 7월~8월 |

3. 연구 흐름과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총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성이 깊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선행연구의 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 관련 이론 검토부문에서는 일반적인 커뮤니티(공동체) 개념과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또한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농촌마을 고유한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리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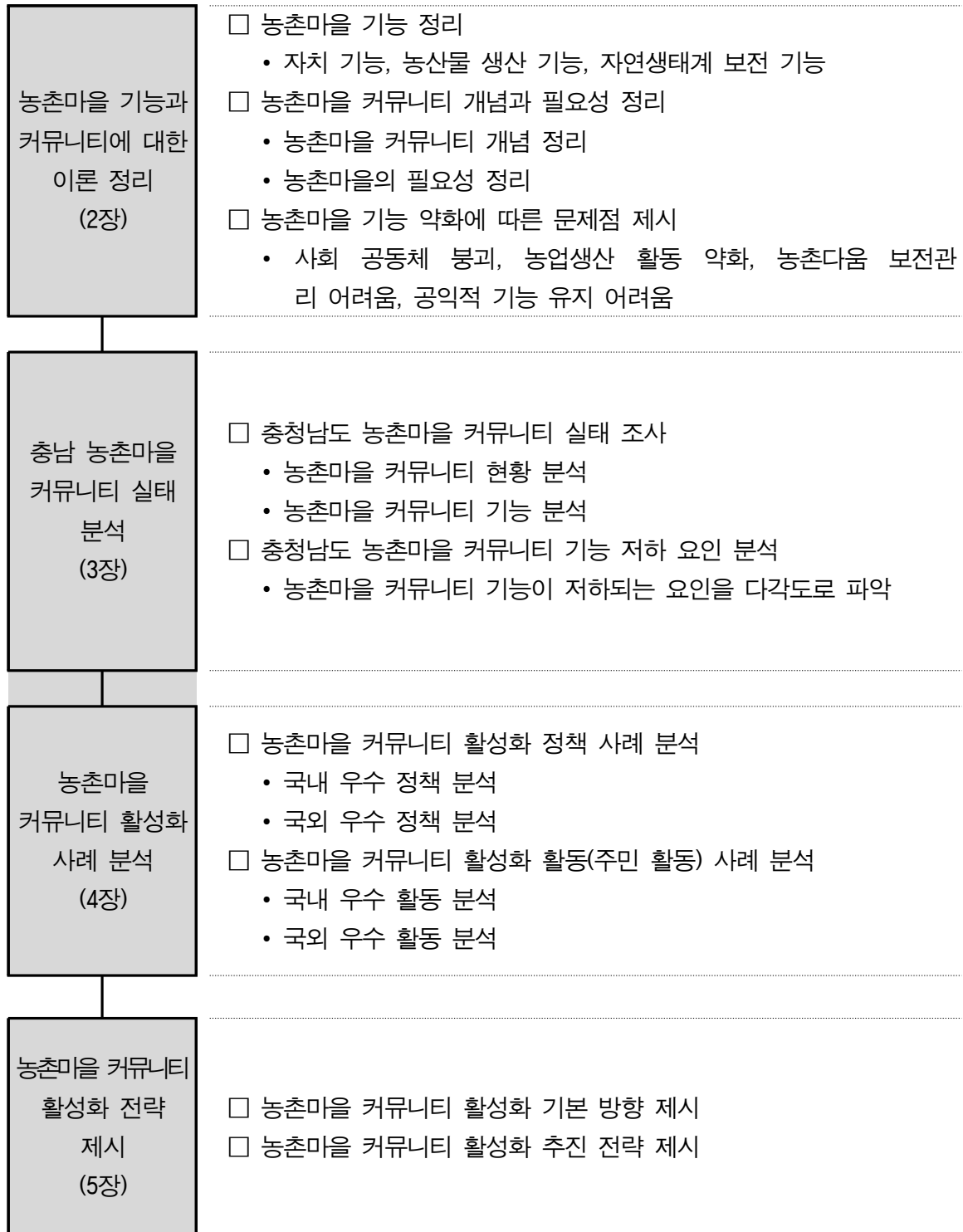
제3장 충남지역 농촌마을 커뮤니티 실태 분석에서는 현지 마을조사, 인터뷰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조직 존재 여부, 커뮤니티 활동 실태, 마을 공동자산 현황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농촌마을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³⁾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농촌마을 커뮤니티 중요성과 최근 들어 커뮤니티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들을 심층 인터뷰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제4장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우수 사례 분석에서는 국내는 물론 국외(일본) 우수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수 사례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사업)에 의한 활성화 사례와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우수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상기의 조사,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본전략을 제시하였다. 활성화 전략은 하드웨어 지원책보다는 지역주민과 외부 주체와의 연계 전략 등 소프트웨어 전략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 요약과 정책 제언으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해야 할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3)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의 특성임. 즉 공동 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인적 자본이 개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을 연결해 주는 관계와 규범을 강조함.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상호 신뢰,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 등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 요소임 (출처: 학습용어사전)



〈그림 1-1〉 연구흐름도(2장~5장)

4. 선행연구 검토

농촌지역 커뮤니티 또는 농촌지역 기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관련 분야 선행연구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와 기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점 검토하였다.

농촌마을 커뮤니티 개념과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로서는

林直樹(2010)는 농촌마을이 제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고유 문화 소멸, 중산간지역 농경지 휴경화 또는 황폐화, 야생동물 피해 증가, 농촌마을 고유의 '2차적자연' 소멸, 농촌마을 생태환경 파괴에 따른 생물다양성에 악영향 등 농촌마을 고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NIINUMA Shiori(2009)는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자연자원 관리 기능', '마을자치 기능'이 농촌마을 커뮤니티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하고 있다. 또한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저하가 농촌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Shiori는 농촌마을 기능 저하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핵심요인" 이라고 규정하였다.

磯野巧(2013)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존속 요인을 사회 기반과 경제 기반으로 구분하였다. 사회 기반으로는 마을 전통 계승에 대한 의식, 지역 활동(커뮤니티 활동) 지속적 전개 등을 제시하였으며, 경제 기반으로는 농업 경영 형태 변화 즉 복합영농에서 다품종 소량 영농 변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존속을 위한 조건으로서 도로 정비, 자동차 보유율 증대 등 교통 관련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임은진(2010)은 '지속가능한 촌락'을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이라는 3가지 지속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상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농촌마을 커뮤니티의 존속 요인을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라 볼 수 있다.

한편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재생)와 관련된 선행연구로서는

방세라(2014)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인 마을회관, 노인정, 마을 쉼터 등 농촌마을 공동이용시설의 활용실태를 분석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의 특징에 따른 유형 분류와 재생전략을 제시하였다. 하드웨어 시설 측면에서 재생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농촌마을 커

뮤니티 기능측면에서 재생 전략은 다루지 않았다.

유학열(2004)은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주민활력 지표를 제시하였다. 주민활력 지표를 '주민 커뮤니티 기초력'과 '주민 커뮤니티 추진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주민 커뮤니티 기초력'에는 주민 간 교류도, 주민 간 단결력, 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의식도, 마을 애착도가 포함된다. 한편 '주민 커뮤니티 추진력'에는 젊은 층 사회활동력과 지역리더 존재가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지표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수행 외(2015)는 농촌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국내외 여러 지역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수 사례 지역 검토를 통해 경기도형 농촌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도형 농촌공동체 지원조직 구축, 현장 중심 농촌공동체 통합조직 구축,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 직거래시스템 구축 및 경기도 농촌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DB구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石原清史(2014)는 최근 일본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집락지원원(集落支援員)', '지역부흥대(地域復興隊)' 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외부(도시)에서의 인력 지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집락지원원', '지역부흥대' 제도는 과소화, 고령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농촌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일본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농촌마을 커뮤니티(공동체)에 관한 개념 정리와 커뮤니티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성과와 한계점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촌마을 커뮤니티 조직의 유형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선행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 한계점은 농촌마을의 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정주기능과 경제기능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다는 점이다.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역할 또는 외부 주체들과의 관계 해석 등 농촌마을 내외의 사회기능 측면에서 접근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제도, 재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농촌마을 주민 스스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농촌마을 주민 스스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의 근본적 힘이 되는 농촌마을 내 사회적자본의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하였다. 즉 농촌마을 커뮤니티 실태를 농촌마을 내부적인 역량과 외부 주체와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 점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관련 이론 검토

1. 공동체(共同體, Community) 개념

공동체라는 개념은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역사,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정립되어 오고 있다. 여기서는 공동체 일반적 개념을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 그 조직을 일컫는 것이 공동체이다. 단순한 결속보다는 더 질적으로 강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공동체는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개인과 공동체사이의 갈등조정이 중요한 관건이다(문학비평용어사전).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혈연공동체로 개인의생존과 집단 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조직 단위이다. 지역을 근거로 한 지역공동체는 협동과 공감의 집단으로 전통사회에서는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혈연, 지연공동체는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 한국전쟁, 산업화 등을 경험하며 전통적인 공동체들은 그 중요성이 감소했다. 대신 새로운 사회 환경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연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편 이종수(2008)⁴⁾는 “공동체는 대단히 신축적인 개념이다” 고 정의하면서, 그것은 작은 마을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지구촌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란 개념을 관통하는 요소가 공통의 연대의식과 호혜적 관계라는 점만은 명확하다. 주관 의식 차원에서 공통의 연대의식 내지는 유대감이 존재하거나, 혹은 객관적 실재로서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의지하고 보탬이 되는 호혜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현대에 논의되는 공동체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다. 근대 이전의 공동체는 대부분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를 전제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의미했다.

4) 이종수(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p.7~8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힘

그러나 최근 논의되는 공동체는 지구촌 공동체나 EU공동체처럼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크게 뛰어 넘어 초광역적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버 공동체처럼 아예 지역적 요소를 초월하여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심리적 연대의식이나 객관적 호혜관계를 전제로 공동체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한편 이해준(2009)⁵⁾은 오늘날 공동체 특징을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차이에 있어 과거에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했지만 최근 통신 기술 발달로 이런 중요도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고 대면접촉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역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줄고 관계 밀도도 줄어들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지역적 공동체라는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다양한 용법이 있으며, 정의도 매우 다양하다. 일반 경향으로는 고정적인 사회,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전통형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지역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공공체가 구축해 온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⁶⁾.

2. 농촌마을 커뮤니티의 개념과 기능

농촌마을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농촌마을 커뮤니티(공동체)를 정의한 연구자도 있지만 여기서는 농촌마을 커뮤니티를 소개하고자 한다⁷⁾. 마을 공동체(커뮤니티)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 살면서 서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끈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정의한다(장수찬, 2015).

마을 공동체란 서로 가까이 살면서 공통의 사회, 경제 이해와 상호부조로 묶인 사람들의 그룹이다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1975). 마을 공동체란 사회적 상호 작용이 비번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이 살면서 그들이 사는 장소와 서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심리적 끈을 가진 사람이다 (Christenson and Robinson, 1989). 마을 공동체란 지역의 일반 시민들이 이루어 낼 수 있는 지역 공공재(common good)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의 마을 공동체는 지리적으로

5) 이해준, 『조선시대 촌락공동체의 제의, 놀이』, 한국사 시민강좌, 2009

6) (재) 농촌개발기획위원회, 『農村整備用語辭典』, 2001

7) 본문에 소개하는 마을 공동체 개념 가운데 외국 학자가 정의한 내용은 원문을 보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장수찬(2015) p.106~107 인용하였음을 밝힘

가까이 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이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며, 경험의 결과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Biddle and Biddle, 1965).

농촌마을은 마을 내 주민만이 아니라 외부의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중요한 기능을 발휘해 왔다. 농촌마을 커뮤니티는 단편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기능들이 유기적,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농촌마을 커뮤니티의 기본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⁸⁾.

첫째, 토지와 마을 내외 생태환의 보전, 관리 기능

둘째, 마을 내 농업 또는 관련 산업 유지, 발전, 보전 기능

셋째, 마을 내 사회 관계의 연락 조절 기능

넷째, 마을 전통 문화 창생, 전승 기능

다섯째, 마을 주민들의 생활 방위(防衛), 복지 향상 기능

3.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개념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룰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농촌 지역을 공간적, 사회적 체계로 보았을 때 최소 단위가 농촌마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농촌마을은 자연부락 또는 행정리를 지칭하며 가장 작은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농촌마을이라는 제약된 공간 범위에서 커뮤니티 활동 개념을 정리된 문헌도 적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 운영, 마을 발전 등 마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활동이며, 외부 주체와의 능동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포함한다” 고 정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을 내 지연조직, 경제 조직, 사회 조직 등 주민조직을 운영하거나 주민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농촌마을 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결성된 ‘마을개발위원회’ 등 마을 개발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 활동과 귀농 또는 귀촌자들로 구성된 조직 활동 포함한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운영, 농산물 직매장 운영 등을 통한 도농교류 활동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범주에 포함하고자 한다.

8) 長谷川昭彦(2004), 『農村ふるさとの再生』, 日本經濟評論社.

4.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저하에 따른 문제점

1) 마을주민들 간 교류, 신뢰도 저하

농촌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는 기본 요소인 커뮤니티 조직(총회, 노인회, 부인회 등)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커뮤니티 조직 기능 저하는 바로 마을주민들 간의 교류 기회를 줄게 하며 또한 주민들 간 교류가 줄어들어 따라 주민들 간 신뢰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마을주민들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농촌마을 내 축적된 사회적자본이 붕괴 될 수 있다.

2) 생활 환경, 정주 환경의 질적 저하

농촌마을 커뮤니티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주민들의 마을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이다. 예를 들어 마을 내 청소, 마을 주변 환경 정비 활동 등도 매우 중요한 커뮤니티 활동이다. 하지만 커뮤니티 조직력이 약화되어 커뮤니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마을 내 생활쓰레기 방치, 마을 하천 오염, 마을 경관 파괴 등 생활환경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커뮤니티 활동 위기

농촌마을의 고령화, 과소화에 의해 커뮤니티 기능이 저하될 경우 주민 공동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커뮤니티 기능이 활발했던 과거에는 공동 농작업(품앗이), 마을숲(마을산) 공동 관리, 마을도로 공동정비, 전통예능 전승 활동, 농경지 또는 농업용수 공동 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커뮤니티 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 자체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4) 마을 고유 전통문화 소멸 위기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저하에 따른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오래 기간에 걸쳐 전승되어 온 마을 고유 전통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농촌마을 전통문화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구지 다루지 않겠지만 농촌마을 전통문화 그 자체가 농촌마을 정통성과 농촌주민의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마을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각종 전통의례는 물론 마을 고유 전통농법, 전통종자(재래종, 고유종) 전승 또한 마을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5) 마을 고유의 2차적 자연 소멸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저하 또는 소멸은 사회적자본의 붕괴, 커뮤니티 활동 저하, 전통문화 소멸뿐만 아니라 오래기간 마을주민들에 의해 형성되어 온 마을 고유의 2차적자원을 상실할 수 있다. 농촌마을 다양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지, 수로, 저수지(뚝방), 잡목림, 소하천 등이 농업활동과 유기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들을 서식하게 한다. 이러한 생물다양성 보고(寶庫)가 농촌마을이 존속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제3장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증 분석

1. 분석 개요

1) 분석 방법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태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행정리)주민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조직(지연조직⁹⁾, 경제조직¹⁰⁾, 사회조직¹¹⁾ 등)의 구성 여부, 활동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마을 커뮤니티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동 자산, 공동 시설¹²⁾ 보유 현황, 시설 상태 및 활용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표 3-1〉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증 분석 개요

| 구분 | 마을 대표(이장) 설문조사 | 마을주민 심층 인터뷰 조사 |
|-------|--|--|
| 조사 대상 |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이장 | 마을 이장 또는 마을 주민 |
| 조사 방법 | 직접 대면식 집합 설명식 | 직접 대면식 |
| 조사 기간 | 2018년 7월~8월 | 2018년 8월~9월 |
| 조사 지역 | 충남 예산군, 금산군, 부여군 | |
| 조사 규모 | 총 81개 행정리 | 총 5명 |
| 조사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인구, 가구수 변화 - 마을의 경제조직, 사회조직 활동 - 마을 공동시설 활용 실태 - 마을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 마을주민들의 교류, 애착 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커뮤니티 기능이 저하된 이유 - 마을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 마을 커뮤니티 활동 중요성 |

9) 농촌마을 지연조직이란 자연적인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집단을 말함. 대표적인 지연조직은 행정리와 대동계(총회)가 있음. 여기서는 행정구역 구분의 의미가 강한 행정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10) 농촌마을 경제조직으로는 수리계, 마을금고, 저축계, 새마을영농회, 작목반, 산림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있음

11) 농촌마을 사회조직으로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향우회, 새마을회, 농민회, 친목계, 동호회, 혼인계, 마을개발위원회 등이 있음

12) 마을 공동시설로는 동네마당(쉼터),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창고, 공동육묘장, 공동작업장, 농산물 가공시설, 농산물 직판장, 체험시설 등을 의미함

실태조사는 두 가지 조사방법이 사용되었다. 한 가지는 마을 대표(이장, 지도자 등) 대상으로 집단 설명식 또는 개별 직접 대면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른 한 방법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직접 대면식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분석 대상, 규모, 내용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일반 농촌마을(행정리)의 커뮤니티 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특별히 조사 대상지역 선정에 위한 기준은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협조가 원활히 진행된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특정 시군 또는 면에 편중된 분석을 피하기 위해 부여군, 금산군, 예산군 3개 군 5개 면 81마을(행정리)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내용은 농촌마을에 커뮤니티 조직 존속 여부, 커뮤니티 공동시설 활용 실태, 농촌마을 주민들 커뮤니티 활동 및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 등이다.

〈표 3-2〉 조사 대상 지역 현황

| 시군 | 해당 면지역 | 조사마을 수 |
|-----|---------------|--------|
| 부여군 | 초촌면 | 24 |
| 금산군 | 제원면, 복수면, 진산면 | 55 |
| 예산군 | 고덕면 | 2 |
| 합계 | 5개 면 | 81개 마을 |

2.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 마을 기본 개요

(1) 조사 대상 마을 인구, 가구수와 변화 추이¹³⁾

81개¹⁴⁾ 조사 대상마을 인구는 최소 25명에서 최대 350명으로 마을 간 편차가 큰 편이었다. 조사 대상마을 평균 인구는 107.4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가구수는 최소 14호에서 최대 180호이며 평균 54.8호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마을은 50호 정도 규모에 인구는 약 110명 정도가 평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당 가족구성원 평균은 약 2.0명으로 나타났다.

〈표 3-3〉 조사 대상마을 인구, 가구수와 변화 추이

| No. | 마을명 | 인구 (명) | 가구 (호) | 귀농귀촌가구(호) | 인구 변화 | 가구수 변화 |
|-----|---------|--------|--------|-----------|-------|--------|
| 1 | 예산 석곡1리 | 180 | 350 | 10 | 증가 | 증가 |
| 2 | 예산 대울리 | 100 | 220 | 10 | 증가 | 증가 |
| 3 | 부여 추양1리 | 41 | 121 | 0 | 감소 | - |
| 4 | 부여 초평3리 | 22 | 35 | 0 | 감소 | - |
| 5 | 부여 송국1리 | 47 | 80 | 1 | 감소 | - |
| 6 | 부여 연화리 | 65 | 130 | 5 | 감소⇒증가 | - |
| 7 | 부여 신암2리 | 17 | 33 | 2 | 감소 | - |
| 8 | 부여 추양3리 | 89 | 152 | 1 | 유지 | - |
| 9 | 부여 추양2리 | 31 | 62 | 0 | 감소 | - |
| 10 | 부여 응평2 | 48 | 90 | 0 | 유지 | - |
| 11 | 부여 세탑리 | 55 | 120 | 6 | 증가 | - |
| 12 | 부여 송정2리 | 35 | 80 | 0 | 감소 | - |
| 13 | 부여 진호2리 | 45 | 80 | 4 | 증가⇒감소 | - |
| 14 | 부여 초평1리 | 56 | 100 | 2 | 감소 | - |
| 15 | 부여 산직1리 | 35 | 65 | 0 | 감소 | - |
| 16 | 부여 진호3리 | 18 | 34 | 3 | 감소⇒증가 | - |
| 17 | 부여 산직2리 | 27 | 41 | 0 | 감소 | - |
| 18 | 부여 응평1리 | 100 | 180 | 3 | 유지 | - |
| 19 | 부여 초평2리 | 22 | 53 | 2 | 증가⇒감소 | - |
| 20 | 부여 산직3리 | 18 | 29 | 0 | 유지 | - |
| 21 | 부여 응평3리 | 30 | 65 | 2 | 감소 | - |

13) 조사 대상마을 인구, 가구수와 최근 변화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 설문조사(2018년 7월)에 의한 것으로 행정조사자료(통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4) 81개 마을 가운데 유효 응답은 인구수의 경우 77개 마을, 가구수의 경우는 78개 마을임

〈표 3-4〉 조사 대상마을 인구, 가구수와 변화 추이(계속)

| No. | 마을명 | 인구 (명) | 가구 (호) | 귀농귀촌가구(호) | 인구 변화 | 가구수 변화 |
|-----|---------|--------|--------|-----------|-------|--------|
| 22 | 부여 소사1리 | 143 | 76 | 11 | 증가 | - |
| 23 | 부여 송국2리 | 39 | 23 | 2 | 감소 | - |
| 24 | 금산 천내3리 | 60 | 54 | - | 감소 | 감소 |
| 25 | 금산 천내1리 | 100 | 60 | 10 | 감소 | 감소 |
| 26 | 금산 저곡1리 | 81 | 47 | 5 | 감소 | 유지 |
| 27 | 금산 수당2리 | 105 | 50 | 3 | 감소 | 감소 |
| 28 | 금산 용화1리 | 107 | 56 | 7 | 감소 | 감소 |
| 29 | 금산 신안리 | 72 | 41 | 5 | 증가 | 증가 |
| 30 | 금산 천내2리 | 250 | 84 | 44 | 증가 | 증가 |
| 31 | 금산 용화2리 | 34 | 27 | 7 | 감소 | 감소 |
| 32 | 금산 동곡1리 | 50 | 36 | 9 | 증가 | 증가 |
| 33 | 금산 구억1리 | 58 | 31 | 3 | 감소⇒증가 | 감소⇒증가 |
| 34 | 금산 수당1리 | 60 | 32 | 3 | 유지 | 감소⇒증가 |
| 35 | 금산 명곡1리 | 25 | 20 | 5 | 감소 | 감소 |
| 36 | 금산 수당4리 | 30 | 14 | 9 | 증가⇒감소 | 유지 |
| 37 | 금산 구억2리 | 115 | 62 | 7 | 유지 | 유지 |
| 38 | 금산 저곡2리 | 80 | 40 | 0 | 감소 | 감소 |
| 39 | 금산 수당3리 | 100 | 50 | 1 | 감소 | 감소 |
| 40 | 금산 제원2리 | 320 | 121 | 5 | 감소 | 감소 |
| 41 | 금산 명곡2리 | 70 | 45 | 10 | 유지 | 유지 |
| 42 | 금산 금성2리 | 36 | 22 | 5 | 감소 | 감소 |
| 43 | 금산 백암3리 | 58 | 28 | 1 | 증가 | 증가 |
| 44 | 금산 다북1리 | 102 | 58 | 3 | 감소 | 유지 |
| 45 | 금산 용진2리 | 80 | 56 | 9 | 감소 | 유지 |
| 46 | 금산 용진3리 | 140 | 90 | 15 | 유지 | 유지 |
| 47 | 금산 다북2리 | - | 38 | - | 감소 | 유지 |
| 48 | 금산 구례1리 | 109 | 74 | 7 | 유지 | 감소⇒증가 |
| 49 | 금산 지량2리 | 78 | 46 | 5 | 유지 | 감소 |
| 50 | 금산 구례2리 | 90 | 37 | 5 | 증가⇒감소 | 감소 |
| 51 | 금산 문암리 | 128 | 54 | 15 | 증가 | 증가 |
| 52 | 금산 지량1리 | 178 | 69 | - | 감소 | 유지 |
| 53 | 금산 신대2리 | 160 | 52 | 2 | 유지 | 감소⇒증가 |
| 54 | 금산 신대1리 | 134 | 87 | 4 | 감소⇒증가 | 감소⇒증가 |
| 55 | 금산 구례3리 | 250 | 82 | 31 | 감소⇒증가 | 감소⇒증가 |
| 56 | 금산 수영3리 | - | 42 | - | 감소 | 감소 |

〈표 3-5〉 조사 대상마을 인구, 가구수와 변화 추이(계속)

| No. | 마을명 | 인구 (명) | 가구 (호) | 귀농귀촌가구(호) | 인구 변화 | 가구수 변화 |
|-----|---------|--------|--------|-----------|-------|--------|
| 57 | 금산 수영2리 | - | 60 | - | 유지 | 유지 |
| 58 | 금산 곡남1리 | 120 | 60 | 4 | 유지 | 유지 |
| 59 | 금산 곡남3리 | 70 | 59 | 7 | 유지 | 유지 |
| 60 | 금산 곡남2리 | 92 | 40 | 4 | 감소⇒증가 | 감소⇒증가 |
| 61 | 금산 백암2리 | 90 | 50 | 16 | 증가 | 증가 |
| 62 | 금산 목소리 | 142 | 74 | 20 | 감소⇒증가 | 감소⇒증가 |
| 63 | 금산 오향2리 | 38 | 26 | 3 | 유지 | 유지 |
| 64 | 금산 엄정1리 | 95 | 53 | 6 | 감소⇒증가 | 감소⇒증가 |
| 65 | 금산 만악1리 | - | 74 | - | - | - |
| 66 | 금산 만악2리 | 66 | 40 | 2 | 감소⇒증가 | 증가 |
| 67 | 금산 엄정2리 | - | - | 20 | 증가 | 증가 |
| 68 | 금산 행정2리 | 80 | 55 | 5 | 증가 | 증가 |
| 69 | 금산 묵산2리 | 122 | 65 | 10 | 유지 | 증가 |
| 70 | 금산 읍내1리 | 172 | 69 | 1 | 감소 | 감소 |
| 71 | 금산 교촌2리 | 87 | 54 | 10 | 감소 | 감소⇒증가 |
| 72 | 금산 삼가1리 | 95 | - | 13 | 감소⇒증가 | 감소⇒증가 |
| 73 | 금산 만악3리 | 122 | 72 | 12 | 증가⇒감소 | 증가⇒감소 |
| 74 | 금산 읍내2리 | 321 | 112 | 29 | 유지 | 유지 |
| 75 | 금산 묵산1리 | 140 | 78 | 10 | 증가 | 증가 |
| 76 | 금산 교촌1리 | 113 | 41 | - | 증가 | 증가 |
| 77 | 금산 삼가2리 | 105 | 65 | 4 | 감소 | 감소 |
| 78 | 금산 석막리 | 123 | 41 | 0 | 감소⇒증가 | 유지 |
| 79 | 금산 오향1리 | 75 | 45 | 5 | 유지 | 유지 |
| 80 | 금산 두지1리 | 158 | 95 | 20 | 유지 | 유지 |
| 81 | 금산 막현리 | 204 | 116 | 20 | 증가 | 유지 |

최근 10년 간 마을 내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유효 응답 80개 마을 가운데 30개 마을 (37.5%)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8개 마을(22.5%)은 “현상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계속 증가” 라고 응답한 마을이 16개(20.0%), “감소하다가 증가” 라고 응답한 마을이 11(13.8%)로 나타났다. 즉 33.8%의 마을은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마을 인구 감소 현상은 모든 농촌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적지 않은 마을에서는 귀농, 귀촌인구의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나

고 있다는 점은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수립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한편, 최근 10년 간 마을 내 가구 수 변화를 살펴보면 상기 인구 변화와는 약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유효 응답 59개 마을 가운데 28.8%인 17개 마을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은 나타났다. 이것은 인구 변화에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는 다르다. 또한 가구 수가 “계속 감소” 한다는 비율과 “계속 증가” 한다는 비율이 25.4%로 같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세대)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타 지역으로 진출했지만 가구(세대)주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귀농, 귀촌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령 독신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가구 수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표 3-6〉 마을 인구와 가구수 변화 규모별 비율

| 구분 | 인구 | | 가구수 | |
|-------|---------|--------|---------|--------|
| | 마을 수(호) | 비율 | 마을 수(호) | 비율(%) |
| 계속 감소 | 30 | 37.5% | 15 | 25.4% |
| 증가⇒감소 | 5 | 6.3% | 1 | 1.7% |
| 유지 | 18 | 22.5% | 17 | 28.8% |
| 감소⇒증가 | 11 | 13.8% | 11 | 18.6% |
| 계속 증가 | 16 | 20.0% | 15 | 25.4% |
| 합 계 | 80 | 100.0% | 59 | 100.0% |

(2) 조사 대상 마을 귀농귀촌 가구 현황

최근 10년 내 귀농, 귀촌한 가구가 있다고 응답한 마을은 91.4%로 나타나 10개 마을 가운데 9개 마을은 최소한 1가구 이상의 귀농 또는 귀촌한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민들 농촌마을로 전입해 오는 귀농 또는 귀촌현상은 충청남도 농촌마을에도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10년 간 마을 당 평균 귀농가구 수는 7.3가구¹⁵⁾이다. 귀농, 귀촌가구가 10가구

15) 최근 10년 간 귀농, 귀촌한 가구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지에 여부는 불확실함. 본 연구에서는 귀농, 귀촌해 온 총 가구 수를 조사한 것임

이상인 마을도 28.4%에 이른다.

〈표 3-7〉 최근 10년간 귀농귀촌 규모별 가구 수

| 귀농귀촌 가구수(호) | 해당 마을 수(호) | 비율(%) |
|-------------|------------|-------|
| 0 | 9 | 12.2 |
| 1~5 | 34 | 45.9 |
| 6~10 | 17 | 23.0 |
| 11~20 | 11 | 14.9 |
| 21~30 | 1 | 1.4 |
| 31가구 이상 | 2 | 2.8 |
| 합 계 | 74 | 100.0 |

2)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조직 존속 실태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조직을 지연조직, 사회조직, 경제조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마을 커뮤니티 조직을 유형화하는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여기에서는 조직 결성 목적에 따라 구분하였다. 지연(地緣)조직은 자연, 지리 조건에 의해 형성된 조직으로 대표적인 것이 행정리와 총회(대동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 의미만을 가진 행정리에 대한 내용은 생략한다. 사회조직은 마을주민에 의해 구성되며 마을 기금 관리, 회계 관리, 마을 행사 기획 및 마을 개발 사업 등 마을 운영과 관련된 것과 마을 주민 간 친목도모, 교류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조직의 기본적 구성원은 마을주민¹⁶⁾이며 공동 영농작업, 마을 기업 운영 등 경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1) 농촌마을 지연조직 구성과 활동 실태

농촌마을 지연조직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것은 마을 총회(대동계)이다. 유효 응답 마을 88.5%에서 마을총회(대동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총회가 존속하지 않는 마을의 대부분은 마을인구가 비교적 소규모인 80명 이하 마을이며 마을 회계, 마을 청소 등 기본적인 커뮤니티 활동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농촌마을 사회조직의 활동 실태

농촌마을 사회조직 가운데 현재 존속하는 대표적 조직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최근 각종 농촌개발 공모사업에 의해 결성된 마을개발위원회와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된 사회조직이 있다.

유효 응답 마을 약 90%에서 노인회(88.5%), 부녀회(88.3%)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각종 마을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51.9%, 청년회 33.3%, 향후회 24.4% 순으로 나타났다. 단, 본 조사에서는 조직별 활동 정도(수준)를 엄밀하게 파악하지 않았기에 조직별 본연의 역할(기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는 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필자의 농촌마을

16)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조직도 있음

현장조사, 마을주민 심층 인터뷰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면 노인회, 부인회, 개발위원회 정도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조직은 거의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8〉 농촌마을 사회조직 존속 비율 (복수응답)

| 사회조직 명 | 유효 응답 마을 수 | 존속 마을 수 | 비율(%) |
|----------|------------|---------|-------|
| 마을회 | 78 | 69 | 88.5% |
| 노인회 | 78 | 69 | 88.5% |
| 부녀회 | 77 | 68 | 88.3% |
| 마을개발 위원회 | 79 | 41 | 51.9% |
| 청년회 | 78 | 26 | 33.3% |
| 친목계 | 79 | 20 | 25.3% |
| 향우회 | 78 | 19 | 24.4% |

사회조직 가운데 예전(대략 10여 년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조직을 살펴보면 청년회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마을의 고령화, 과소화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친목계 30.0%, 농민회 21.7%, 동호회 20.0%, 새마을회 18.3%로 나타났다.

유효응답 79개 마을의 사회조직은 평균 4.4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존속 규모별로 살펴보면 3~4개 존속이 48.1%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5~6개 27.8%, 7~8개 11.4%, 0~2개 10.1%, 9개 이상 2.5%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농촌마을 사회조직 존속 규모별 비율

| 사회조직 존속 수 | 마을 수 | 비율(%) |
|-----------|------|-------|
| 0~2개 | 8 | 10.1% |
| 3~4개 | 38 | 48.1% |
| 5~6개 | 22 | 27.8% |
| 7~8개 | 9 | 11.4% |
| 9개 이상 | 2 | 2.5% |

〈표 3-10〉 조사 대상마을 사회조직 존속 실태(존속: ●)

| No.17) | 마을 | 노인 | 청년 | 부녀 | 향우 | 새마 | 농민 | 친목 | 동호 | 혼인 | 개발 | 귀농 | 합계 |
|--------|----|----|----|----|----|----|----|----|----|----|----|----|----|
| 1 | ● | ● | ● | ● | ● | ● | | ● | ● | ● | ● | | 10 |
| 2 | ● | ● | ● | ● | | | | ● | ● | | | | 6 |
| 3 | ● | ● | | | | ● | | | | ● | ● | | 5 |
| 4 | ● | ● | | ● | | | | | | | | | 3 |
| 5 | | ● | | ● | | | | | | | | ● | 3 |
| 6 | ● | ● | ● | ● | | | | | | | ● | | 5 |
| 7 | ● | ● | ● | ● | | | | | | | | | 4 |
| 8 | ● | ● | | ● | | | | | | | | | 3 |
| 9 | ● | ● | ● | ● | | | | | | | | | 4 |
| 10 | ● | ● | ● | ● | ● | | ● | ● | | | ● | | 8 |
| 11 | ● | | | | | | | | | | | | 1 |
| 12 | ● | ● | | ● | | | | | | | | | 3 |
| 13 | ● | | | | | | | | | | | | 1 |
| 14 | ● | ● | | ● | ● | | | | | | | | 4 |
| 15 | ● | ● | ● | ● | | | ● | ● | ● | ● | | | 8 |
| 16 | ● | ● | | ● | ● | ● | | | | | | | 5 |
| 17 | ● | ● | | ● | ● | | | | | | ● | | 5 |
| 18 | ● | ● | ● | ● | | | | | | | ● | | 5 |
| 19 | | | ● | ● | | | | | ● | | | | 3 |
| 20 | | ● | | ● | | | | | | | | | 2 |
| 21 | ● | ● | | ● | | | | | ● | | | | 4 |
| 22 | ● | ● | ● | ● | | | | | ● | | | | 5 |
| 23 | ● | ● | ● | ● | | | | | | | | | 4 |
| 24 | ● | ● | ● | ● | | | | | | | | | 4 |
| 25 | ● | ● | ● | ● | ● | | | ● | | | ● | | 7 |
| 26 | ● | ● | | ● | | ● | | ● | | ● | ● | | 7 |
| 27 | ● | ● | | ● | | | | | | | ● | | 4 |
| 28 | ● | ● | ● | ● | | ● | | | | ● | ● | | 7 |
| 29 | ● | ● | | ● | | | | | | | ● | ● | 5 |
| 30 | ● | ● | ● | ● | | | | | | | ● | | 5 |
| 31 | ● | ● | ● | ● | | ● | | | | | ● | | 6 |
| 32 | ● | ● | | ● | | | | | | | ● | | 4 |
| 33 | | | | | | ● | ● | | ● | | | | 3 |
| 34 | ● | ● | | ● | | | | | | | | | 3 |
| 35 | ● | ● | | | | | | | | ● | ● | | 4 |
| 36 | ● | ● | | | | | | ● | | | | | 3 |
| 37 | ● | ● | | | | | | ● | | | | | 3 |
| 38 | ● | ● | | ● | ● | | | ● | | | ● | | 6 |
| 39 | ● | ● | ● | ● | | | | | | | ● | | 5 |
| 40 | ● | | | | | | | | | | ● | | 2 |

17) 전술의 표 3-3의 마을번호와 동일

〈표 3-11〉 조사 대상마을 사회조직 존속 실태(계속)

| No. | 마을 | 노인 | 청년 | 부녀 | 향우 | 새마을 | 농민 | 친목 | 동호 | 혼인 | 개발 | 귀농 | 합계 |
|-----|----|----|----|----|----|-----|----|----|----|----|----|----|----|
| 41 | ● | ● | | ● | | | | | | | | | 3 |
| 42 | ● | ● | | ● | | | | | | | ● | | 4 |
| 43 | ● | ● | | ● | | | | ● | | ● | ● | ● | 7 |
| 44 | ● | ● | | ● | | | | ● | | ● | ● | | 6 |
| 45 | ● | ● | | ● | ● | ● | | ● | | | | | 6 |
| 46 | ● | ● | | ● | | | | | | | | | 3 |
| 47 | ● | ● | | ● | | | | ● | | | | | 4 |
| 48 | ● | ● | ● | ● | ● | | | | | | | | 5 |
| 49 | ● | ● | | ● | ● | | | ● | | | | | 5 |
| 50 | ● | ● | | ● | | | | | | | | | 3 |
| 51 | | ● | ● | ● | | | | | | | | | 3 |
| 52 | ● | ● | | ● | ● | ● | | ● | | | | | 6 |
| 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 ● | ● | | | | | | | ● | | | | 3 |
| 55 | ● | ● | | ● | | ● | | | | | | | 4 |
| 56 | ● | ● | | ● | | | | | | | | | 3 |
| 57 | ● | ● | | ● | | | | | | ● | | | 4 |
| 58 | ● | ● | ● | ● | | | | | | ● | ● | | 6 |
| 59 | | ● | | | | | | | | | | | 1 |
| 60 | ● | | | | | | | | | | | | 1 |
| 61 | ● | ● | | ● | ● | | | | | | ● | | 5 |
| 62 | ● | ● | ● | ● | ● | | | ● | ● | ● | ● | ● | 10 |
| 63 | ● | ● | | ● | | | | | | | ● | | 5 |
| 64 | ● | ● | | ● | ● | | | | | ● | ● | | 6 |
| 65 | | | | ● | ● | ● | | | | | ● | | 4 |
| 66 | ● | ● | | | ● | | | | | | | | 3 |
| 67 | ● | ● | | ● | | | | | | | ● | | 4 |
| 68 | ● | ● | | ● | | | | | | ● | | | 4 |
| 69 | | | | ● | | | | | | | | | 1 |
| 70 | ● | ● | | ● | | | | | | | ● | | 4 |
| 71 | | ● | | ● | | ● | | | | ● | | | 4 |
| 72 | ● | ● | | ● | | | | | | | | | 3 |
| 73 | ● | ● | | ● | | | | | | | | | 3 |
| 74 | ● | ● | ● | ● | | ● | | ● | | | | | 6 |
|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 ● | | ● | ● | ● | | | | | | | | 4 |
| 77 | | | | ● | | | | | | | | | 1 |
| 78 | ● | ● | | ● | ● | ● | | ● | | | ● | | 7 |
| 79 | ● | ● | ● | ● | ● | ● | | | | | | | 7 |
| 80 | ● | ● | ● | ● | | | | ● | ● | | ● | | 7 |
| 81 | ● | ● | ● | ● | | | | | | | | | 4 |

(3) 농촌마을 경제조직의 활동 실태

농촌마을의 경제조직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리계, 마을금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마을기업,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법인체 형태의 새로운 경제조직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리계(水利契)는 벼재배지역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직된 수리(水利)공동조직이다. 우리 나라 농촌에는 몽리자(蒙利者)¹⁸⁾ 집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수리 집단인 보계(洩契)가 있었는데 차츰 저수지나 보와 같은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방식이 보급되면서 수리계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마을금고는 한 마을 주민들의 상호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협동조직이다. 마을금고의 주된 업무는 조합원(회원)으로부터 출자금 및 예탁금 수입과 이를 기초로 조합원(회원)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계(契)조직은 농촌주민 필요에 의해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 유지된 집단이다. 계는 그 기원이 불확실하고 종류가 다양하며 기능도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계는 계원 상호부조, 친목도모, 공동이익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규약을 만들고 운영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농촌마을 계로서는 저축계, 쌀계, 산림계 등이 있다.

작목반은 농산물 품목별로 공동 작업, 농업기술 교류, 공동 유통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품목별 농가들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의 농촌마을 경제조직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법인 형태 조직이 많다.

최근 농촌마을 내 경제조직들은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조사 대상 81개 마을 가운데 절반 이상 마을에서 존속하는 경제조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많이 존속하는 경제조직은 작목반으로 40.8%의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새마을영농회 32.4%, 영농조합법인 25.4%, 수리계 15.5%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금고, 저축계, 산림계, 농업회사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존속하는 마을 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고는 존속을 하더라도 활동을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는 유명무실한 조직이 적지 않다.

18) 논농업에 있어 관개(灌漑) 또는 관개시설의 혜택을 받는 사람임

〈표 3-12〉 농촌마을 경제조직 존속 비율 (복수응답)

| 경제조직 명 | 유효 응답 마을 수 | 존속 마을 수 | 비율 |
|--------|------------|---------|-------|
| 작목반 | 71 | 29 | 40.8% |
| 새마을영농회 | 71 | 23 | 32.4% |
| 영농조합법인 | 71 | 18 | 25.4% |
| 수리계 | 71 | 11 | 15.5% |
| 마을기업 | 71 | 4 | 5.6% |
| 사회적기업 | 71 | 3 | 4.2% |
| 산림계 | 71 | 3 | 4.2% |
| 마을금고 | 71 | 2 | 2.8% |
| 협동조합 | 71 | 2 | 2.8% |
| 농업회사법인 | 71 | 1 | 1.4% |

경제조직 가운데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조직을 살펴보면 저축계/쌀계가 36.2%로 가장 많았으며, 마을금고 20.7%, 수리계 15.5%로 나타났다. 농촌마을 내 자생적인 경제조직인 각종 계조직과 마을금고가 농협, 일반 금융기관의 확대에 의해 농촌마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대상 농촌마을 경제조직이 평균 1.12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이익조직 평균 4.4개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직 존속 규모별로 살펴보면 0~2개 존속하는 마을이 86.8%로 월등히 많았으며 3~4개 존속 11.8%, 5~6개 존속 2.6%순으로 나타났다. 7개 이상 경제조직을 존속하는 마을은 한 곳도 없었다.

〈표 3-13〉 농촌마을 경제조직 존속 규모별 비율

| 경제조직 존속 수 | 마을 수 | 비율(%) |
|-----------|------|-------|
| 0~2개 | 66 | 86.8% |
| 3~4개 | 9 | 11.8% |
| 5~6개 | 2 | 2.6% |
| 7~8개 | - | - |
| 9개 이상 | - | - |

〈표 3-14〉 조사 대상마을 경제조직 존속 실태(존속: ●)

| No. | 수리 계 | 마을 금고 | 저축 계 | 새마 을 | 작목 반 | 산림 계 | 영농 법인 | 회사 법인 | 마을 기업 | 협동 조합 | 사회 기업 | 들녘 경영 | 합 계 |
|-----|---------|----------|---------|---------|---------|---------|----------|----------|----------|----------|----------|----------|--------|
| 1 | | | | ● | ● | | ● | | | | | | 3 |
| 2 | | | | | | | | | ● | | | | 1 |
| 3 | | | | ● | ● | | ● | ● | | ● | | | 5 |
| 4 | | | | | | | | | | | | | 0 |
| 5 | | | | | | | | | | | | | 0 |
| 6 | | | | ● | ● | | ● | | | | | | 3 |
| 7 | | | | | ● | | | | | | | | 1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0 |
| 11 | | | | | | | | | | | | | 0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2 |
| 14 | | | | ● | | | ● | | | | ● | ● | 4 |
| 15 | | | | | | | | | | | | | 0 |
| 16 | | | | | ● | | | | | | | | 1 |
| 17 | | | | ● | ● | | ● | | | | | | 3 |
| 18 | | | | ● | ● | | | | | | | | 2 |
| 19 | | | | ● | | | | | | | | | 1 |
| 20 | | | | | | | ● | | | | | | 1 |
| 21 | | | | | | | | | | | | | 0 |
| 22 | ● | ● | ● | | ● | | ● | | | | | | 5 |
| 23 | | | | | | | ● | | | | | | 1 |
| 24 | ● | | | | | | | | | | | | 1 |
| 25 | ● | | | | | | | | | | | | 1 |
| 26 | | | | ● | | | ● | | | | ● | | 3 |
| 27 | | | | ● | | | | | | | | | 1 |
| 28 | ● | | | ● | | | ● | | | | | | 3 |
| 29 | | | | ● | | | ● | | | | | | 2 |
| 30 | ● | | | ● | | | | | | | | | 3 |
| 31 | | | | | | | ● | | | | | | 1 |
| 32 | | | | ● | | | | | | | | | 1 |
| 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0 |
| 35 | | | | | | | | | | | | | 0 |
| 36 | ● | | | | | | | | | | | | 1 |
| 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 | ● | | ● | | | | | | | | | 2 |
| 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3-15〉 조사 대상마을 경제조직 존속 실태(계속)

| No. | 수리 계 | 마을 금고 | 저축 계 | 새마 을 | 작목 반 | 산림 계 | 영농 법인 | 회사 법인 | 마을 기업 | 협동 조합 | 사회 기업 | 들녘 경영 | 합 계 |
|-----|---------|----------|---------|---------|---------|---------|----------|----------|----------|----------|----------|----------|--------|
| 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 ● | | | | | | | | | | | | 1 |
| 43 | | ● | ● | | | | | | | | | | 2 |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 ● | | | | | | | | | | | 1 |
| 46 | | | | | | | ● | | | | | | 1 |
| 47 | | | | | | | | | | | | | 0 |
| 48 | | | | | | | | | | | | | 0 |
| 49 | ● | | | | | | | | | | | | 1 |
| 50 | | | | | | | | | | | | | 0 |
| 51 | | | | | | | | | | | | | 0 |
| 52 | | ● | | | ● | | | | | | | | 2 |
| 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 | | | ● | ● | | | | | | | | 2 |
|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 | | | | ● | ● | | | | | | | 2 |
| 58 | | | | | | | | | | | | | 0 |
| 59 | | | | | ● | | | | | | | | 1 |
| 60 | | | | | | | | | ● | | | | 1 |
| 61 | | | | | | | | | | | | | 0 |
| 62 | | | | | ● | | ● | | | ● | | | 3 |
| 63 | | | | | | | | | | | | | 0 |
| 64 | | | | | | | | | | | | | 0 |
| 65 | | | | | ● | | | | | | | | 1 |
| 66 | | | | | ● | | | | | | | | 1 |
| 67 | | | | | | | | | | | | | 0 |
| 68 | | | | | ● | | | | | | | | 1 |
| 69 | | | | ● | | | | | | | | | 1 |
| 70 | | | | | ● | | ● | | | | | | 2 |
| 71 | | | | ● | | | | | | | | | 1 |
| 72 | | | | | | | | | | | ● | | 1 |
| 73 | | | | | | | | | | | | | 0 |
| 74 | | | | | | | ● | | | | | | 1 |
| 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 | | | | | | | | | | | | 0 |
| 77 | | | | ● | | | | | | | | | 1 |
| 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 | | | | ● | | | | | | | | 1 |
| 80 | | | | | ● | | | | | | | | 1 |
| 81 | ● | | | | ● | ● | ● | | | | | | 4 |

(3) 소결

농촌마을 커뮤니티 조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연조직인 마을총회(대동계)는 현재도 어느 정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조직과 경제조직은 그 숫자도 줄어들고 있으며 본연의 기능도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온 가장 큰 요인은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젊은층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 요소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귀농 또는 귀촌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마을 대부분에서 귀농, 귀촌가구가 있다는 점이다. 귀농, 귀촌인을 단지 농촌마을 인구 늘리기, 농업 노동력 확보 차원이 아닌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인자로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귀농, 귀촌인들을 마을 내 각종 조직에 적극,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그 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지식 등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서는 귀농 또는 귀촌인이 6차산업, 농촌관광 등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통해 침체된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3)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태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태 조사 결과 현재 농촌마을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은 크게 ‘마을청소’, ‘마을잔치’, ‘마을주변 풀베기’, ‘마을축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청소는 수시로(부정기적) 마을안길, 마을 주차장, 마을 회관(노인회관) 등을 청결하게 하는 활동이며 마을잔치는 정월대보름, 어버이날, 한 여름 삼복(三伏)날¹⁹⁾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정도의 활동이 보편적이다. 또한 마을주변 풀베기는 보통 연 1~2회 정도 마을주민 가운데 성인남자들이 공동으로 마을 주변 풀을 제거하는 활동이며 풀베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도 많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마을잔치는 마을주민들만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마을축제는 마을 내 조성된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 농촌관광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입하여 소득사업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마을주민보다는 다른 지역(도시민)민을 위한 행사이다.

유효 응답 75개 마을 가운데 80%인 60개 마을에서 매년 1회 이상 마을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촌마을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커뮤니티 활동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을잔치를 행하는 마을이 69.3%, 마을주변 풀베기를 하는 마을이 62.7%로 나타나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은 마을청소, 마을잔치, 마을주변 풀베기가 정형화된 형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마을축제를 행하는 마을은 전체의 21.3%에 그치고 있어 마을축제는 보편적 커뮤니티 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표 3-16〉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별 실행 비율 (복수응답)

| 커뮤니티 활동명 | 유효 응답 마을 수 | 활동 마을 수 | 비율 |
|----------|------------|---------|-------|
| 마을청소 | 75 | 60 | 80.0% |
| 마을잔치 | 75 | 52 | 69.3% |
| 마을주변 풀베기 | 75 | 47 | 62.7% |
| 마을축제 | 75 | 16 | 21.3% |

19) 매년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함

〈표 3-17〉 조사 대상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태

| No. | 마을청소 | 마을주변 풀베기 | 마을잔치 | 마을축제 | 합계 |
|-----|------|-------------|------|------|----|
| 1 | ● | ● | ● | | 3 |
| 2 | ● | ● | ● | ● | 4 |
| 3 | ● | ● | ● | ● | 4 |
| 4 | | | | | 0 |
| 5 | ● | | | | 1 |
| 6 | ● | ● | ● | | 3 |
| 7 | ● | ● | ● | ● | 4 |
| 8 | ● | ● | ● | | 3 |
| 9 | ● | ● | | ● | 3 |
| 10 | ● | ● | ● | | 3 |
| 11 | ● | ● | ● | | 3 |
| 12 | ● | ● | ● | | 3 |
| 13 | ● | | | | 1 |
| 14 | ● | ● | ● | | 3 |
| 15 | ● | ● | ● | | 3 |
| 16 | ● | ● | ● | | 3 |
| 17 | ● | ● | ● | | 3 |
| 18 | ● | ● | ● | | 3 |
| 19 | ● | ● | ● | | 3 |
| 20 | - | - | - | - | |
| 21 | ● | ● | | ● | 3 |
| 22 | | | ● | | 1 |
| 23 | ● | ● | | | 2 |
| 24 | - | - | - | - | - |
| 25 | ● | | ● | ● | 3 |
| 26 | ● | ● | ● | | 3 |
| 27 | ● | ● | | ● | 3 |
| 28 | ● | ● | | | 2 |
| 29 | ● | ● | ● | | 3 |
| 30 | | | | | 0 |
| 31 | ● | | | | 1 |
| 32 | ● | | ● | | 2 |
| 33 | ● | ● | ● | | 3 |
| 34 | ● | | | | 1 |
| 35 | ● | ● | ● | | 3 |
| 36 | ● | | ● | | 2 |
| 37 | ● | ● | ● | | 3 |
| 38 | | ● | | | 1 |
| 39 | ● | ● | | ● | 3 |
| 40 | ● | | | ● | 2 |

〈표 3-18〉 조사 대상마을 커뮤니티 활동 실태(계속)

| No. | 마을청소 | 마을주변 풀베기 | 마을잔치 | 마을축제 | 합계 |
|-----|------|-------------|------|------|----|
| 41 | ● | | ● | ● | 3 |
| 42 | ● | ● | | ● | 3 |
| 43 | ● | | ● | | 2 |
| 44 | ● | | ● | | 2 |
| 45 | ● | ● | ● | | 3 |
| 46 | | | ● | | 1 |
| 47 | - | - | - | - | - |
| 48 | ● | ● | ● | ● | 4 |
| 49 | ● | ● | ● | | 3 |
| 50 | | | | | 0 |
| 51 | ● | ● | ● | | 3 |
| 52 | ● | ● | ● | | 3 |
| 53 | - | - | - | - | - |
| 54 | ● | ● | ● | | 3 |
| 55 | ● | | ● | | 2 |
| 56 | ● | ● | ● | | 3 |
| 57 | | | ● | | 1 |
| 58 | | | ● | | 1 |
| 59 | ● | | | | 1 |
| 60 | ● | | | | 1 |
| 61 | ● | ● | ● | | 3 |
| 62 | ● | ● | ● | ● | 4 |
| 63 | ● | | | | 1 |
| 64 | ● | ● | ● | ● | 4 |
| 65 | ● | ● | ● | ● | 4 |
| 66 | ● | ● | ● | | 3 |
| 67 | | ● | ● | | 2 |
| 68 | ● | ● | ● | | 3 |
| 69 | | | | ● | 1 |
| 70 | - | - | - | - | - |
| 71 | ● | ● | ● | | 3 |
| 72 | ● | | ● | | 2 |
| 73 | | | | | 0 |
| 74 | | | ● | | 1 |
| 75 | | ● | ● | | 2 |
| 76 | ● | ● | ● | | 3 |
| 77 | | | | | 0 |
| 78 | ● | | ● | | 2 |
| 79 | - | - | - | - | - |
| 80 | | ● | | | 1 |
| 81 | ● | ● | ● | | 3 |

4) 농촌마을 공동재산²⁰⁾, 시설 활용 실태

농촌마을에는 마을 주민 공동 편의, 복지, 경제활동을 위해 마을 공동명의로 된 유무형의 재산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 공동소유 토지(건물), 마을회관(노인회관), 마을 공동창고, 공동 육묘장, 공동퇴비장, 공동 작업장, 마을 농산물 가공시설, 마을 농특산물 직판장, 마을 숙박 체험시설의 존재 여부와 시설 상태, 활용 상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농촌마을 공동재산, 시설 보유 실태

조사 대상마을 공동재산, 시설 보유 실태를 살펴보면 마을회관(노인회관)은 98.7%의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마을 마당 69.5%, 마을 공동소유 토지(건물) 64.6%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외 시설로는 공동창고 23.1%, 체험시설 9.0%, 직판장 7.7%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 육묘장, 공동 작업장, 농산물 가공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은 2~3%에 불과하였다.

〈표 3-19〉 농촌마을 공동재산, 공동시설 보유 실태 (복수응답)

| 공동재산, 공동시설 | 유효 응답 마을 수 | 보유 마을 수 | 보유 비율 |
|-----------------|------------|---------|-------|
| 마을공동 토지(부동산) | 79 | 51 | 64.6% |
| 마을 동네마당(쉼터) | 79 | 55 | 69.6% |
| 마을회관(경로당, 노인회관) | 78 | 77 | 98.7% |
| 공동 창고 | 78 | 18 | 23.1% |
| 공동 육묘장 | 78 | 1 | 1.3% |
| 공동 퇴비장 | 78 | 0 | 0.0% |
| 공동 작업장 | 78 | 2 | 2.6% |
| 농산물 가공시설 | 78 | 2 | 2.6% |
| 농특산물 직판장 | 78 | 6 | 7.7% |
| 마을 숙박체험 시설 | 78 | 7 | 9.0% |

20) 마을공동재산은 주민의 공동편의 및 공동복지를 위해 마을명의로 소유하는 재산임. 그리고 주민 편의 및 복지라는 측면에서 마을회관, 임야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릇과 같은 동산도 마을재산 범위에 포함됨. 마을재산은 마을 규약에 따라 운용되며 그러한 규약이 없다면 마을이 그 동안 해왔던 관행이나 관례가 마을재산 운영방법이 될 수 있음 (박동진, 2017)

(2) 농촌마을 공동시설 상태

농촌마을 공동시설별 시설 상태를 살펴본 결과²¹⁾ ‘양호하다’ 56.4%, ‘보통이다’ 36.4%로 나타나 보통이상 비율이 92.8%로 공동시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별 시설별로 살펴보면 ‘양호하다’는 비율은 농산물 직판장이 83.3%로 가장 높았으며 체험숙박 시설 71.4%, 마을회관 67.6%, 마을 공동토지(건물) 54.3%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직판장과 체험숙박시설은 표본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두 시설을 제외하면 마을회관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양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로는 마을 마당(텃터) 46.0%, 마을 공동창고 33.3%로 나타났다.

〈표 3-20〉 농촌마을 공동재산, 공동시설 상태

| 공동재산, 시설 | 응답수 | 양호 | 보통 | 노후 | 보통이상 비율 |
|-------------|-----|------------|-----------|----------|---------|
| 마을 공동토지(건물) | 46 | 25(54.3%) | 19(41.3%) | 2(4.3%) | 95.7% |
| 마을 마당(텃터) | 50 | 23(46.0%) | 24(48.0%) | 3(6.0%) | 94.0% |
| 마을회관(노인회관) | 68 | 46(67.6%) | 19(27.9%) | 3(4.4%) | 95.6% |
| 마을 공동창고 | 18 | 6(33.3%) | 6(33.3%) | 6(33.3%) | 66.7% |
| 농산물 직판장 | 6 | 5(83.3%) | 1(16.7%) | 0(0.0%) | 100.0% |
| 체험숙박시설 | 7 | 5(71.4%) | 2(28.6%) | 0(0.0%) | 100.0% |
| 합계 | 195 | 110(56.4%) | 71(36.4%) | 14(7.2%) | 92.8% |

(3) 농촌마을 공동시설 활용 실태

농촌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시설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62.8%가 ‘적극 활용’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보통이다’ 34.6%를 포함하면 97.4%가 보통이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혀 활용되지 않고 ‘방치 한다’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농촌마을 공동시설은 대체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시설별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마을회관(노인회관)이 82.1%가 ‘적극 활용’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회관 다음으로 ‘적극 활용’ 비율을 보면 마을공동 토지(건물)이 60.0%, 농산물 직판장 50.0%, 마을마당(텃터) 49.0% 순으로 나타났다.

21) 응답수가 매우 적은 육묘장, 퇴비장, 작업장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3-21〉 농촌마을 공동재산, 공동시설 활용 실태

| 공동재산, 시설 | 응답수 | 적극활용 | 보통 | 방치 | 보통이상 비율 |
|-------------|-----|------------|-----------|----------|---------|
| 마을 공동토지(건물) | 45 | 27(60.0%) | 17(37.8%) | 1(2.2%) | 97.8% |
| 마을 마당(쉼터) | 49 | 24(49.0%) | 25(51.0) | 0(0.0%) | 100.0% |
| 마을회관(노인회관) | 67 | 55(82.1%) | 12(17.9%) | 0(0.0%) | 100.0% |
| 마을 공동창고 | 17 | 8(47.1%) | 6(35.3%) | 3(17.6%) | 82.4% |
| 농산물 직판장 | 6 | 3(50.0%) | 3(50.0%) | 0(0.0%) | 100.0% |
| 체험숙박시설 | 7 | 3(42.9%) | 3(42.9%) | 1(14.2%) | 85.7% |
| 합 계 | 191 | 120(62.8%) | 66(34.6%) | 5(2.6%) | 97.4% |

(4) 소결

농촌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표 공동시설은 마을회관(노인회관), 마을마당(쉼터), 마을공동 토지(건물)로 나타났다. 3개 시설을 제외하면 농촌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시설은 매우 적다. 대부분의 공공시설 소유 비율은 10% 미만이며 공동퇴비장을 소유하고 있는 마을은 한 곳도 없었다.

3대 대표 공동시설 시설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면에 있어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회관, 마을마당(쉼터), 마을공동 토지(건물)은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라 볼 수 있다. 향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있어서도 전술의 3개 시설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촌경제 다각화를 위한 농산물 직판장, 체험숙박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5) 농촌마을 주민들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실태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농촌마을이 축적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자본에 대한 개념과 농촌마을 개발, 커뮤니티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대한 선행연구²²⁾는 매우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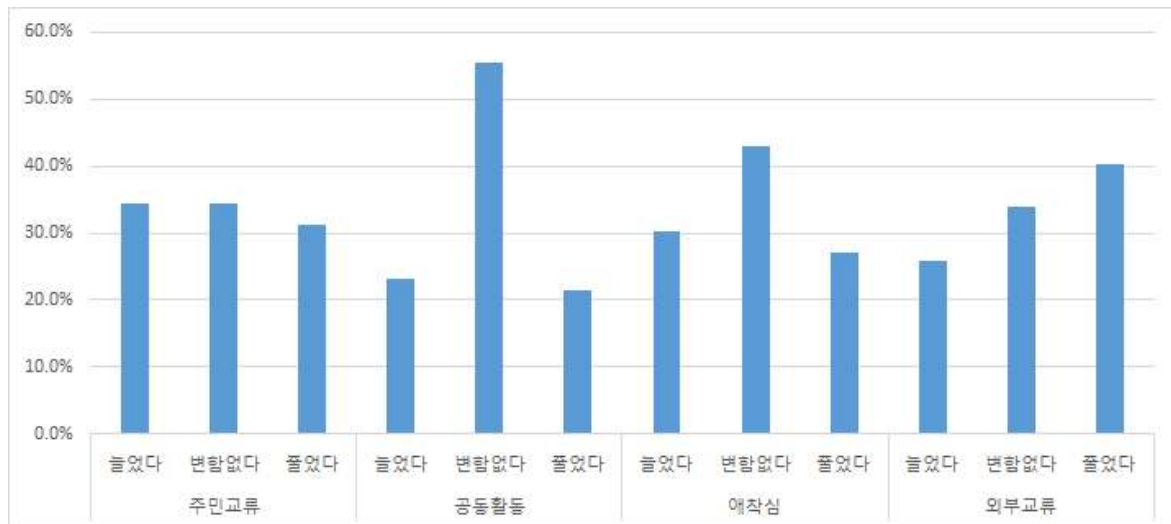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농촌마을 사회적자본 형성에 핵심 요소인 마을주민들 간 교류, 마을 내 공동활동,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이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 보았다.

마을주민들 간 교류는 '10년 전보다 늘었다', '변함없다'는 비율이 34.4%로 같았으며 '10년 전보다 줄었다'는 비율은 31.3%로 나타나 늘었다는 비율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마을주민들 공동 활동(마을청소, 마을잔치 등)에 대해서는 '변함없다'가 55.4%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전보다 늘었다' 23.1%, '10년 전보다 줄었다' 21.5%로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들의 자기 마을에 대한 애착심은 '변함없다'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전보다 늘었다' 30.2%, '10년 전 보다 줄었다' 27.0%로 나타났다.

한편 외부(다른 마을, 지역)사람들과 교류를 살펴보면 40.3%가 '10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33.9%는 '변함없다', 25.8%는 '10년 전보다 늘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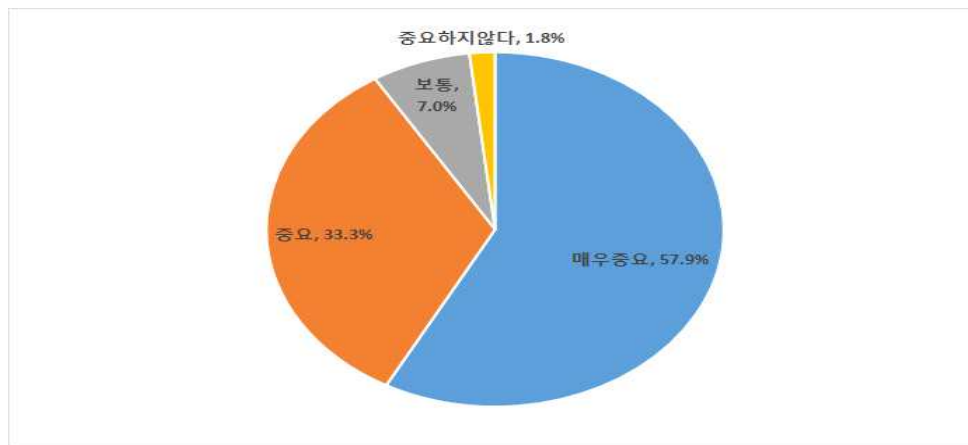
<그림 3-1> 농촌마을 사회적자본 변화

22) 유학열(2003), 山村集落における活性化要因に関する考察, 유학열(2004), 山間地域における住民活力の評価に関する考察 등이 있음

주민들 간 교류와 마을 커뮤니티 활동과의 상관분석(이변량 상관)²³⁾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0.74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 간의 교류와 마을에 대한 애착심간의 상관계수는 0.749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6) 농촌마을 공동체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실태

마을 커뮤니티(공동체)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9%가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하였고 '중요하다' 는 비율도 33.3%로 나타났다. 마을 커뮤니티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하다. 이렇듯 마을주민들은 마을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농촌마을 공동체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23) SPSS 24로 분석. 유의 수준 99%

7) 농촌마을 주민 심층인터뷰 결과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커뮤니티 중요성, 커뮤니티 활동 저하 요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등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인터뷰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마을 커뮤니티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터뷰 대상자 모두 매우 중요하며 농촌마을을 유지함에 있어 커뮤니티 활동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과거에 비해 마을 내 커뮤니티 활동은 계속해서 저하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소한 존재하는 현재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그 활동도 활성화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마을 커뮤니티가 왜 중요한냐는 질문에는 마을주민들 간 친목도모, 마을 행사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마을 커뮤니티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커뮤니티 활동이 왜 저하되고 소멸되었는지에 대한 요인으로서는 마을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답변이다. 특히 젊은층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을 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조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져 마을 인구가 증가되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마을 커뮤니티가 와해되거나 붕괴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과거에 행해졌던 커뮤니티 활동과 현재 활동에 큰 변화가 없어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아 커뮤니티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도 커뮤니티 활동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원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게 외부로부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 힘만으로는 커뮤니티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 주체들이 지원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구가 적어 한 마을이 단독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마을과 연계한 커뮤니티 활동은 어떤가 라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연계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방안으로 귀농, 귀촌인구를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3-22〉 농촌마을 주민 심층인터뷰 내용 정리

| No | 대상 | 조사 지역 | 주요 내용 |
|----|-----|---------|--|
| 1 | 이OO | 금산군 제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조직 가운데 청년회가 가장 인원도 많고 활동도 많았는데 10여 년 전에 없어짐. 그 이유는 젊은 사람이 많이 마을을 떠났기 때문임 - 현재 남아 있는 조직들도 <u>정기적 모임 없이</u> 가끔 회원들끼리 식사하는 정도임 - 전에는 우리마을과 <u>1사1촌 협약</u>을 맺은 기업들 직업이 농촌 봉사활동을 하러 오곤 했는데 <u>지금은 거의 오지 않음</u>. 외부사람들과 함께하는 행사는 없으며, 도외지 사람들이 마을로 찾아와 무언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음 - 마을주민들 간에 화합은 잘 되고 있으며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도와주고 있음 |
| 2 | 한OO | 예산군 고덕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귀농 또는 귀촌해 들어오는 인구가 꾸준히 있어 마을에 활기가 있음. <u>귀농인들도 마을회의나 행사에 잘 참여</u>해 주고 있음 - <u>인근 마을과 특별히 교류하는 것은 없음</u>. 하지만 어떤 행사나 마을잔치를 같이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거 같아 좋을 것 같음 - 마을에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어 마을행사를 치르기에 노인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임. 마을에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u>젊은 사람들이 많이 마을로 들어와</u> 살아야 함 -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무엇이 있는 지 조사를 하거나 기록해 놓은 것은 없음. 이 전에 누군가가 와서 마을 둘러보고 사진 찍고 기록하는 것을 본 적 있음 |
| 3 | 윤OO | 예산군 대흥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마을사람들과 마을일을 많이 하고 있음. <u>최근에는 소득사업을 마을 주민들과 하려고 준비</u>하고 있음.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려고 함.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마을에 도시민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됨 - 마을 주민들과는 <u>마을 내 청소, 풀베기를 매년 2~3차례</u> 하고 있으며, 어버이날, 여름철 복날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음 - <u>보통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이야기</u>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음. 마을회관은 시설이 비교적 좋아서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음 - 가능하다면 인근 <u>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u>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됨.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생각함. 충남연구원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길 바랍 |

〈표 3-23〉 농촌마을 주민 심층인터뷰 내용 정리(계속)

| No | 대상 | 조사 지역 | 주요 내용 |
|----|-----|------------|---|
| 4 | 조OO | 부여군 초촌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내 이장을 맡고 있는 내가 가장 젊은 사람임. 젊은 친구들이 없어 새롭게 마을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별히 할 생각도 없음 - 마을에 남아 있는 조직은 노인회, 부녀회가 있지만 가끔 모여 식사를 하는 정도로 별다른 활동은 하고 있지 않음. <u>부녀회의 경우 거의 유명무실해 짐</u> - 마을주민들이 모여 마을청소, 마을 풀베기는 몇 년 전에 없어졌으며 지금은 부녀자들 모여 <u>마을회관을 청소하는 정도임</u> - 가능하다면 <u>외부의 젊은친구들 아니면 대학생들이 와서 농사일을 돕거나 마을 청소를 해 주는 프로그램</u>이 있었으면 좋겠음 |
| 5 | 이OO | 금산군 금북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민 대부분이 <u>70대 이상 고령</u>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 별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음. 과거에 마을 개발사업을 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음 - 귀농하러 마을로 들어 온 가구가 몇 개 있지만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 항상 거주하고 있지 않아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마을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음 - 마을 인구가 계속 줄어가면 언젠가는 <u>인근 마을과 행정리가 합쳐질 것으로 생각됨</u>. 행정리 합쳐지는 것에 대해 특별히 반감은 가지고 있지 않음. 어느 정도 마을에 사람이 살아야 마을 조직이든 마을 행사를 할 수 있음 |

제4장 국내외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우수 사례

고령화, 과소화 및 농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에 의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농촌마을 커뮤니티를 마을 주민들의 지혜와 협력에 의해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일본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로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킨 사례를 정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수 정책도 정리하였다.

1. 국내외 농촌마을 활성화 우수 사례

1) 충남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 마을

(1) 마을주민 경제공동체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설립

2008년에 당진시 순성면 백석리로 귀농한 김OO씨가 2010년 백석리 부녀회장을 맡으면서부터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갖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검은들 권역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석리에서는 약 10만 그루의 매실나무를 마을 내에 심었다. 그 후 생매실을 수확, 판매하는 단순한 소득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생매실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요 농산물인 쌀과 매실을 사용한 전통 발표 과줄인 ‘매실한과’를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 부녀회로 시작된 매실한과 사업은 2013년 마을 부녀회 회원 33명이 출자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을 창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조합원이 점점 늘어 현재는 약 50여 명이 되었으며, 20여 명이 넘는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성공적 6차산업을 이루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사업 6차산업 부분 대상 수상(2015년, 농촌진흥청)의 영예를 안았다.



<그림 4-1> 백석올미마을의 커뮤니티 경제사업 형태

(2)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에 의해 마을 경제 공동체 활성화

매실한과는 2012년 가을부터 생산,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매실한과 가공에 필요한 주원료인 찹쌀과 매실은 마을 주민과 조합원 농가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찹쌀과 매실을 소매가격으로 매입함에 따라 마을 주민들 소득증대와 더 나아가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한과 공장에 고용(상근, 비상근)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주민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농업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백석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을 통해 침체된 마을 내 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낸 우수 사례로 국내외적으로 유명하다.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매실한과 외에 매실조청, 매실장아찌, 매실발효액 등 다양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판매함에 따라 매실한과에만 치우쳤던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개선시켜 나갔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러한 농촌마을 내 경제 공동체가 고령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농촌마을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을 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주민 평생학습활동(체조교실, 노래교실 등) 지원 등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 충남 서천군 달고개 모시마을(한산면 월산리)

(1)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실태

서천군 달고개 모시마을은 2005년 ‘서천 어메니티 마을’ 선정과 함께 마을사업 지원금 1억을 받으면서 농촌마을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6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모시떡, 모시공예, 천연염색, 농촌체험 등 농촌체험 마을로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모시 관련 식품 개발에 나섰으며 그 결과 2011년 9월부터 모시송편과 가래떡을 본격적으로 가공, 판매하기 시작했다.

달고개 모시마을은 마을 주민의 80% 이상이 고령인구 이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공동체 사업 추진은 마을 주민들은 물론 마을 커뮤니티 활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모시 가공품 생산, 판매에 따른 소득 창출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마을 공동체 삶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달고개 모시마을의 총 가구 수는 52가구(2016년 현재)이며 이 가운데 46가구가 공동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고령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70% 수준으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고령자에 적합한 작업 형태이기에 고령자들도 어렵지 않게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4-2> 달고개 모시마을의 커뮤니티 경제 사업 형태

(2) 경제사업외 다양한 마을 문화행사 실시

달고개 모시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계절별 전통 행사인 밀밭 밟기, 배나무 봉지 씌우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 마을 및 서천군 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직판장, 숙박 등 달고개 마을에서 경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표 4-1〉 달고개 모시마을 문화행사 현황

| 행사 명 | 시행년도 | 장소 | 주요 내용 |
|-----------|-------|----------|---------------|
| 배꽃 축제 | 2012년 | 전통테마관 | 가족단위 농촌체험 |
| 칠월칠석제 | 2007년 | 전통테마관 | 도농교류, 주민화합 |
| 우리밀 밟기 | 2009년 | 우리밀 재배농가 | 도농교류, 전통놀이 |
| 마을주민 화합잔치 | 2013년 | 전통테마관 | 출향민, 마을주민 화합 |
| 마을주민 생일잔치 | 2008년 | 전통테마관 | 마을주민 생일잔치, 관광 |

(3) 마을 공동체사업을 통한 커뮤니티 회복

달고개 모시마을은 공동체 사업(소득사업)을 통해 획득한 이익 일부를 마을주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천 사랑장학회와 기부 협약을 맺고 매년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초고령 노인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매달 열고 있으며 매년 6백만 원 정도를 마을 주민의 화합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예산군 해뜨는 초막골²⁴⁾ (예산군 삼교읍 상하1리)

(1) 해뜨는 초막골 마을 개요

상하1리 초막골 마을은 예산군 서쪽에 있으며 군소재지와는 거리는 약 18Km, 삼교읍 소재지와는 약 6Km로 접근성이 좋다. 지금은 거의 모두 개간이 되었지만 원래 임야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에 의해 사계절 내내 온화하고 큰 강이나 하천이 없어 홍수, 가뭄 등 풍수해가 거의 없는 자연에 혜택을 많이 받은 마을이다. 또한 농경지 경관, 소나무 군락, 뽕나무

24)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 마을

길, 용난샘 등 우수한 농촌경과자원들이 잘 보존되어 경관이 수려하고 농촌다움이 잘 남아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2) 주요 마을 사업

해뜨는 초막골 마을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초막골의 농업문화와 유적 복원을 통해 마을기록을 하는 사업이다. 초막골 마을 역사이자 마을을 만들어 온 마을주민들 생생한 기억과 농촌 역사, 문화 자료들을 수집하여 마을문화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과거 선조들의 지혜와 현재 실버세대들의 노력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농촌다움을 복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막골마을 주민들 스스로 함께 모여 마을 청소, 꽃 가꾸기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라사랑 무궁화 꽃길 조성, 백일홍 꽃길 조성, 국화 꽃길 조성, 왕벚 꽃길 조성, 공동체 마을청소 활동이 있다.

이렇듯 마을 공동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주민들 간의 화합과 신뢰를 쌓기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 동아리 활동, 공동체 문화 활동 등을 끊임없이 추진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4) 고라쵸 마을의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사례

(1) 고라쵸(甲良町)지역의 개요

고라쵸는 일본 고도(古都)인 교토(京都)시에서 비교적 가까운 시가현에 속한 전형적인 도시 근교 농업지역이다. 인구는 약 8,400명이며 지역 내에 이누가미가와(犬上川)라는 1급 하천이 흐르고 있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도 풍부하여 물(水)을 주제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2) 고라쵸의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과정

고라쵸에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에 실시된 후루사또 창생사업²⁵⁾(고향재생사업)이 계기가 되어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고라쵸 내의 13개 소마에 ‘마을가꾸기위원회’라는 주민조직이 결성되었는데 그 후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는 지역전통문화의 보전·계승, 생활환경 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 지역주민 스스로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 측에서는 고라쵸 종합계획을 책정, 지역개발의 초점을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보전과 정비’에 두어 각종사업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각 마을에 결성된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원활한 조직운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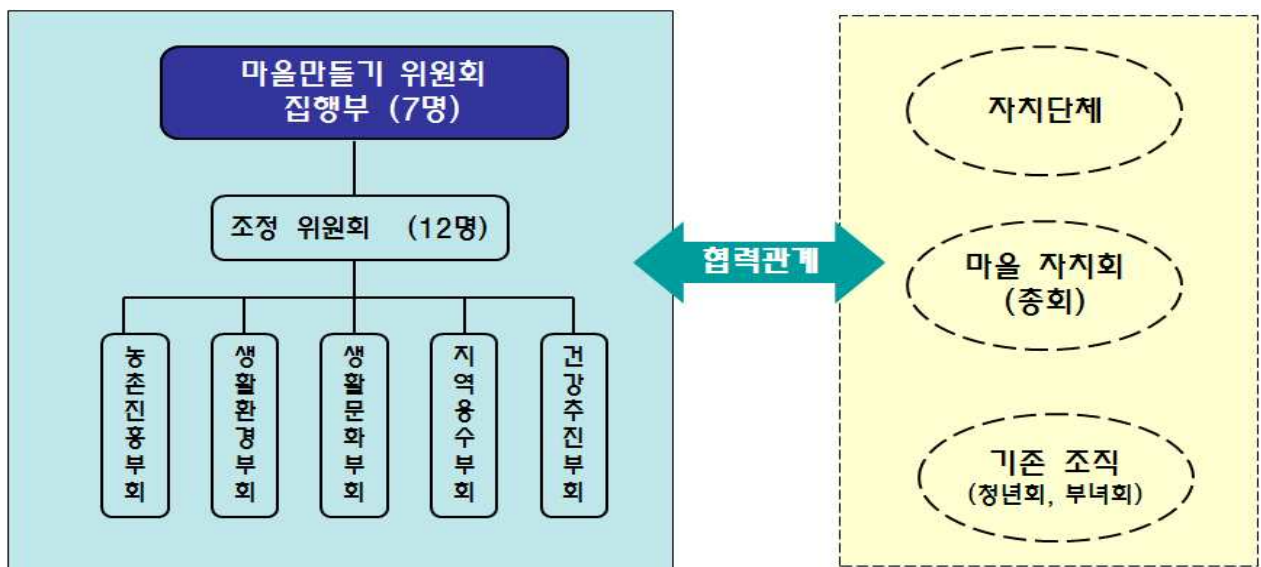


25) 다케시타(竹下)내각 때 시행된 사업으로 일본의 모든 지자체(시정촌)에게 지역진흥자금 1억엔(약 12억원)을 교부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활성화사업을 추진함

(3)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 활동

고라초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근본은 ‘마을만들기위원회’의 결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을별로 조직 구성 방식에는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총괄역할을 하는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집행부가 있고, 그 아래 마을별 특성에 따라 농촌진흥부회, 생활문화부회, 환경부회, 건강추진부회, 지역용수부회라는 분과가 설치돼 있다. 농촌진흥부회에서는 지역영농발전 위한 학습 및 실천활동, 생활문화부회에서는 생활환경개선을 비롯한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환경정비부회에서는 마을공원 조성 및 정비, 건강증진부회에서는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학습회 개최, 그리고 지역용수부회에서는 마을 내에 흐르는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부와 5개 분과 사이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양자 간의 연락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인적구성면을 살펴보면, 집행부는 위원장, 부위원장(3명), 간사, 서기, 회계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마을만들기 계획서를 작성하여 마을자치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그림 4-3> 고라초 기타오씨마을의 마을만들기 위원회 조직도

(3) 고라초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운영 기본 원칙

고라초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설정해 놓고 있다.

① 마을에 있어서의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위상: 마을자치회(총회)의 부속조직이며 활동계획의 최종적 결정권은 마을자치회가 가지고 있다.

②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위원 선출 방법: 마을 주민이라며 누구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타인의 추천이든 자의에 의해서든 아무런 제약 없이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마을 구장(區長)²⁶⁾의 위촉에 의하며, 부위원장은 당년도 부구장이 겸직하게 된다.

③ 회의: 주요 회의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조정위원회회가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모든 위원이 모여 각분과별 활동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보고하며 새로운 마을만들기 활동의 제안도 한다. 전체회의는 월 1회 개최되고 있다. 분과회의에서는 각 분과의 위원들이 모여 활동 계획 및 실천을 위한 내용을 토의하며, 대체로 연 6회 정도 개최된다.

④ 운영자금: 기본적인 운영자금은 고라초의 단독사업인 ‘지역만들기지원사업’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단,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한다. 그 외 마을자치회비로서 가구당 매월 5천엔(약 5만원)을 징수하여 이것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4) 고라초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시사점

고라초의 마을만들기위원회는 활동 과정이 세부화 되어 있어 마을 주민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즉 많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조직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을의 축제,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곧 마을 전통의 계승이자 후계자 육성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마을만들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가 대개 1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마을의 리더가 되고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라초의 마을리더들은 마을에 거주하며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구장과 함께 마을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마을리더들은 청년시절 청년회(청년단) 활동을 통해 지역리더로서의 학습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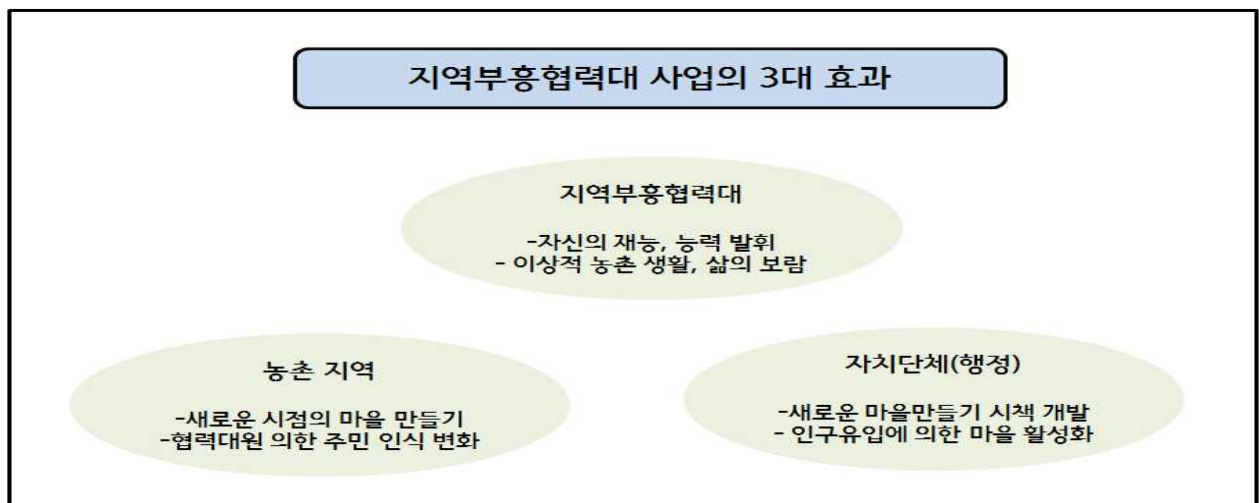
26) 여기서 말하는 구장(區長)은 우리나라의 이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의 직장에 나가 근무하면서 주말, 휴일을 이용하여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을리더가 육성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국외(일본) 농촌마을 활성화 관련 지원 정책

1) 지역부흥협력대(地域復興協力隊) 제도

지역부흥협력대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에서 선발된 협력대원을 농촌지역에 일정 기간(1년~3년) 정주시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지역협력활동)을 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지역부흥협력대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농림수산업에 종사, 수원(水源)보전 활동, 환경보전 활동, 주민생활지원²⁷⁾, 지역활성화사업²⁸⁾ 지원 활동을 한다. 선발된 협력대원은 생활의 거점을 도시지역에서 산촌, 어촌, 도서지역으로 이주하여 반드시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상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협력대원에게는 연간 최대 400만 엔²⁹⁾ 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4-4> 지역부흥협력대의 사업 효과

2009년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9명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누계 67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625명으로 늘어났다. 대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이 약 60%, 여성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를 보면 약 80%가 2~30대로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총무성에서 조사한 지역부흥협력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원 임기 만료 후 약 59%가 활동했던 지역에 계속해서 남아 정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의

27) 마을 내 독거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돌봄 활동

28) 지역(마을) 내 각종 행사 지원, 지역(마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농촌관광 사업 지원, 지역특산물 판매 지원 등

29) 활동비 200만 엔 + 생활비 200만 엔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활동 기간 완료 후 정주한 협력대원의 직업형태를 보면 활동한 농촌지역 내에서 47%가 취업, 18% 취농, 17% 창업³⁰⁾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대원 선발 방법은 협력대원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특별한 기준(자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를 선발하는 제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선발된 협력대원이 해당 지역에 잘 정착하게끔 월 2회 자율 활동 부여, 차량 제공,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협력대원 활동에 의한 정책 성과로서는 ‘마을 내 빈집이 점점 줄어들어 마을에 활력을 되찾았다’, ‘외부의 시각에서 지역의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었다’,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참가율이 향상되었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2) 집락지원원(集落支援員) 제도

2008년에 도입된 집락지원원 제도는 조건이 불리한 농촌, 산촌지역의 집락(마을)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한계집락대책의 하나이다. 집락지원원이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마을 활성화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인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받아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마을을 순회하고 지역(마을)상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집락지원원의 역할은 해당 지역 공무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인구동향, 주민생활상 파악, 농지 상황, 지역자원 발굴, 귀농(귀촌)자 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일본에서는 집락점검(集落點檢)³¹⁾이라고 함상기의 집락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한다. 선발된 집락지원원에게는 연간 최대 350만 엔이 지급되며, 별도의 직업이 있어 겸업을 할 경우에는 연간 40만 엔이 지급된다.

2013년 현재 196개 지방자치단체에 전임 741명, 겸임 3,764명, 총 4,505명이 활동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술적으로 1개의 기초자치단체(시정촌, 市町村)에 평균 약 23명의 집락지원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임

30) 창업시에는 별도로 1인당 100만 엔 한도로 지원됨

31) 집락점검이란 집락이라는 지역공간을 대상으로 주민이 집락의 환경, 공간의 현황, 문제점 등을 집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함. (農村整備用語辭典(농촌개발기획위원회 2001년 개정판) 참고)

3) 아름다운 농촌재생 지원 사업

‘아름다운 농촌재생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다랑이논, 마을 숲, 마을 하천 등에 의해 형성되는 아름다운 풍경(경관), 문화, 전통 등의 종합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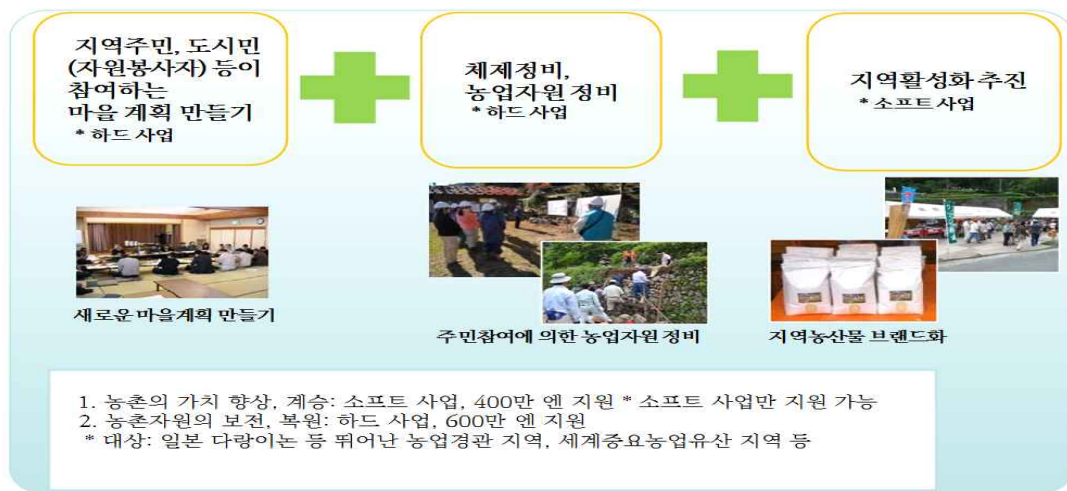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경관, 전통예능 등의 소중한 지역자원이 고령화, 과소화에 의해 보전,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지역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자원들을 현대적인 의미를 재평가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로서 재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농촌재생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가치 향상, 계승 (소프트 지원): 농촌지역의 경관, 전통, 문화 등의 가치를 향상, 계승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 지원과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둘째, 후세에 남기고 싶은 농촌자원의 보전과 복원 (하드 지원): 다랑이논, 마을 숲, 마을 하천 등 농촌자원의 보전과 복원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 한다.

본 사업비는 소프트 사업에 400만 엔, 하드 사업에 600만 엔이다.



<그림 4-5> 아름다운 농촌재생 지원 사업

4) 농촌집락활성화 지원 사업

인구 감소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마을 간 네트워크 구축함에 따라 마을(지역)의 유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구 감소, 지역력 쇠퇴에 따라 마을

존속에 위기감 도래. 농촌마을 원래 모습으로 존속하기 위해 마을 간 노동력, 지혜 등을 협력, 보완해 나가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집락활성화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민 주도로 지역(마을)의 장래 비전 작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 워크숍 지원이 있으며, 지역(마을)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지역 활성화 세미나 참석 지원 등이 있다.



<그림 4-6> 농촌집락활성화 지원 사업

5) 시사점

일본의 농촌마을 또는 과소마을 대책의 근본이 되는 과소법(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전체적 방향이 하드적 지원에서 소프트적(인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인프라 구축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실효성을 강조한 소프트적(인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유연성³²⁾이 발휘되고 있다. 이것은 관련 정책들의 현장에서의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부흥협력대, 집락지원원 제도가 도입된 지 5~6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점점 그 숫자가 증가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의 이 제도에 대한 수요와 실용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 집락지원원의 활동을 위한 보수, 활동여비, 마을활동 비용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조치를 취함. 메이지대학 오다기리교수는 “보조금에서 보조인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표현함.

이러한 정책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농촌지역 실정에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인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인력도 중요하지만, 이주前 농촌지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닌 핵심인력을 유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소화된 농촌지역에 인구를 늘려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음. 양적인 인구 증가보다는 소수라도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수에 의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인의 유입 등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장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기본방향과 전략

1.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기본 방향

1) 외부 주체들과의 적극적,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전술의 제2장에서 농촌마을 커뮤니티(공동체)는 일정 지역(공간)안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는 하나의 조직체라 정의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농촌마을은 현실적으로 마을 내 커뮤니티 역량만으로는 마을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치 기능 조차 유지하기 힘들며, 정상적인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민, 소비자 등 외부의 주체(개인, 조직, 기관 등)들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성 교류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류활동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또는 마을주민)이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일방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주민들의 주도권에 크게 침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 주체들의 힘을 빌리거나 정기적 도움을 받아 침체되고 저하된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2) 농촌마을 내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형성이 필요하다.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요소로 인적자본, 경제적자본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민들 간의 신뢰, 친밀한 교류, 마을에 대한 애착 등 사회적자본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의 기존 연구(유학열, 2002, 2003)에서도 농촌마을 내 주민 간 교류가 왕성할수록 주민 조직 활동,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는 상관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마을에 대한 애착과 마을 주민 간의 신뢰감 역시 마을 커뮤니티 활동과 연계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혔다. 사회적자본은 농촌마을 커뮤니티를 건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요인이기에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 신뢰 구축 등 사회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3) 농촌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다.

농촌마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들이 농촌 커뮤니티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그 기능들도 함께 저하,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제2장에서 전술하였듯이 농촌마을의 공익적 기능은 농촌지역만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혜를 받는 기능으로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 보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은 곧 농촌마을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촌마을에서는 공익적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마을주변 생태환경 개선 활동, 농업 경관 보전 활동, 유기농업 전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농촌주민들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주체들과의 협력적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4) 농촌마을 간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서는 마을 내 인적자원의 질적, 양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마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농촌마을에서는 가장 기초적 커뮤니티 기능인 자치기능조차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많은 농촌마을에서는 정상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주체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앞서 제시하였지만, 또 다른 방안은 주변 농촌마을과의 연계이다. 생활권이 유사하고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개인적 교류와 마을간 교류가 빈번했던 주변 마을과의 공동 마을 잔치, 공동 마을 청소 등 일상적 커뮤니티 활동은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농촌마을 간의 협력적 커뮤니티 활동은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인근 마을주민들과의 신뢰 구축과 교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2.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기본 전략

여기에서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을 앞서 제시했던 ‘외부 주체들과의 적극적,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 ‘농촌마을 사회적자본 형성’,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주변 농촌마을과의 연계’ 라는 4개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외부 주체들과의 적극적,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 기본 전략

(1) 농촌마을 커뮤니티 지원단 운영

많은 농촌마을에서는 절대적 인력 부족과 마을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커뮤니티 활동이 저하되고 있거나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농촌마을 내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외부 주체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여기서 제시하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지원단(이하 커뮤니티 지원단)’이란 현재 농촌마을에 존속하고 있는 각 사회적 이익집단 또는 경제적 이익집단들의 고유 활동을 지원해주는 외부조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지원단에서는 농촌마을의 집단(조직)규범 만들기(또는 개정) 지원, 집단별 활동 계획 수립 지원 및 집단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지원단은 도시지역의 비영리단체, 지역대학의 연구실 등 외부 조직(기관)의 협조를 받아 구성하고 하나의 지원단이 몇 개의 농촌마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외부조직(기관)이 부담하지만 지원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보조금이나 마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커뮤니티 지원단의 활동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 외부 주체들과의 교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2) 지역 대학생과 교류 강화

농촌마을과 지역 대학생(대학원생)간³³⁾ 다양한 형태의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촌마을

33)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국한할 필요는 없음

에 활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젊은층에게 농촌마을에 관심을 갖게끔 하고 더나가 장래에 농촌마을에서 창농 또는 창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

지역 대학생과 농촌마을과의 교류 방안으로 ‘대학생 농촌마을 교류단(가칭)’ 구성을 제안한다. 충청남도 내 대학생(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농촌마을 교류단(가칭)³⁴⁾’을 선정하고 선정된 교류단에 활동 기획비, 활동 추진비를 지원하여 실제로 농촌마을에 들어가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지역대학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학점인정 또는 과제인정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교류단의 활동으로서는 마을 자원조사, 독거노인 순회 케어, 마을환경 정비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참고: 대학(생)과 함께하는 희망농촌만들기 프로젝트³⁵⁾

■ 농촌관련 교양과목 개설

- 목적: 대학생에게 농촌지역의 중요성, 농촌이해, 농촌개발 방향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장래 각자의 영역에서 농촌지역을 위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도록 함
- 방법: 대학에 농촌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개발, 실습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

■ 대학생 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

- 목적: 대학생들의 농촌봉사단체 조직과 운영을 통하여 대학생과 농촌주민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대학생에게 농촌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함
- 방법: 기존 대학동아리 농촌봉사대를 연합형태로 관리 또는 신규 조직

■ 대학생 재능기부 캠프

- 목적: 대학생 재능기부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교육, 의료, 복지, 인문학 분야를 보완하고 대학생과 농촌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함
- 방법: 다양한 전공영역(언어교육, 의료, 복지, 인문학 등)으로 구성된 대학생 캠프를 농촌지역에서 실시함

■ 대학생 농촌활동 포인트제

- 목적: 농촌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농촌활동을 활성화시킴
- 방법: 유형별 농촌활동(봉사, 재능기부, 농촌거주, 농촌관련 교과목 이수, 도농교류 참여, 농촌 축제 참여 등)에 대하여 포인트를 부여. 포인트를 적용하여 농촌관련 기관 취업 시 우대

3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2017년 ‘대학생 농촌교류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음

35) 공주대학교 정환영 교수 ‘대학(생)과 함께하는 희망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자료 인용함

2) 농촌마을 사회적자본 형성 전략

(1)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략 가운데 가장 기본은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다. 조사 대상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의 일상적인 교류는 마을회관(노인정)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정도로 주민들 간 교류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들 간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교류가 가능한 장소가 마을회관 또는 마을 마당(쉼터)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프로그램안으로는 ‘마을 전통 음식 만들기’, ‘주변 마을주민들과의 공동 식사’, ‘마을주민 생일파티(월1회)’, ‘마을주민 외식 나들이’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생 공모전, 상기에서 제시한 커뮤니티 지원단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다.

(2) 마을 “지원학(地元學)” 프로젝트 지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은 농촌마을 사회적자본 형성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마을에 대한 애착심은 마을주민들이 얼마만큼 자기마을에 대해 알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기 마을을 알기 위한 일반적 수법은 마을자원 찾기, 마을진단 지도그리기 등이 있으며 마을개발 계획 수립에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마을을 알아가는 수법으로 일본에서는 지원학(地元學)이라는 것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원학이란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주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마을에 존재하는 자연, 풍토, 문화 등을 조사, 분석한 후 마을 독자적인 개성 풍부한 생활(문화)을 만들어 가는 지적창조(知的創造) 행위다. 즉 마을의 자원들을 조사하면서 전통적인 생활방식, 지혜를 찾아내는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원학은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재생)를 위한 계획학적 수법이며 마을주민들이 지원학을 실천함으로써 마을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소중함과 애착심을 인지해 줄 수 있다.

마을자원찾기



마을진단 지도그리기



마을 자원 찾기



마을 자원 SWOT 분석



마을 미래상 그리기



마을 세부사업 발굴



<그림 5-1> 마을자원찾기, 마을진단 지도그리기 과정의 사례

지역자원의 지속적·순환적 이용·관리
전통적「생활방식」·「지혜」



지원학

마을(지역)주민들이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 마을(지역)에 존재하는 자연, 풍토, 문화 등을
조사, 분석하여 마을 독자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적창조활동

<그림 5-2> 지원학의 개념

3)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전략

(1) 마을 자원 아카이빙 구축 사업

농촌마을에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 예부터 전승되어 온 소중한 자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에 이러한 소중한 농업, 농촌자원들을 제대로 보존,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농촌마을 주민들과 전문기관이 함께 마을 내에 있는 전통 농업기술(농법), 농업지식, 문화, 경관 등을 발굴하고 디지털화(아카이빙)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본 사업은 지역자원의 영구 보존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더나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후보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림 5-3> 농업유산의 사례

(2) 마을 생태자원 복원, 보전활동 지원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익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마을 내 소하천, 마을 숲, 둑병 등 자연생태 환경과 농업생태 환경을 회복시키고 보전하는 활동은 향후 농촌마을 존속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생태환경, 농업환경 보전은 농촌다움(rurality) 유지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해 온 ‘도랑살리기’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농업(어업)유산제도’의 도입과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주변 농촌마을 간의 연계 전략

(1) 농촌마을 연합 커뮤니티 조직 구성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는 단순한 행정사항 전달과 마을기금 회계

결산 정도의 최소한 커뮤니티 기능만이 유지되고 있으며 농촌마을 커뮤니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마을 커뮤니티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마을자치 기능, 마을자원 보전, 관리 기능, 마을 전통문화 계승 기능 등을 유지하기 어려워 질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리 단위 또는 주변 몇 개 마을과 연계하여 연합 커뮤니티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각 마을의 마을기금 관리와 최소한의 자치기능은 현 상황 그대로 유지하되, 마을자원 관리, 마을주민들 간 친목도모를 위한 마을잔치,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마을청소, 풀베기 등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연합해서 추진할 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마을개발 전문가들은 연합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규약만들기, 활동계획 수립 등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생, 시민단체에서는 커뮤니티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행정에서는 연합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일본 히로시마현 미요시시 사쿠기 마을의 집락(마을)기능 재편

- 사쿠기 마을은 커뮤니티 기능을 재편하여 마을 활성화에 성공한 곳임

- 집락(마을, 커뮤니티)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정기총회'를 재편함

1997년 85개 총회 ⇒ 2014년 12개로 줄임

- 마을 자원관리와 생활유지 기능은 마을에서 담당하고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기능과 마을 정주 기능 개선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식의 역할 분담

* 출처: 정경희외(2014) '한계취락의 인구감소 대책방안 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서천군(2018)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방안'

(2) 농촌마을 간 연합 교류 프로그램 개발

앞서 제시한 농촌마을 연합 커뮤니티 조직이 결성되면 연합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히 마을별 총회 기능을 하나로 묶어놓는 차원이 아닌 마을 생태환경 자원의 복원활동, 마을 경관 보전 활동, 연합 마을 축제 등 농촌마을 본연의 기능들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시행은 마을주민은 물론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합 마을 축제에서는 사라져 버린 마을노래자랑, 장기자랑, 체육대회 등 마을주민들 간 화합과 친목도모

는 물론 출향민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마을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마을에서의 인구유입 대책은 귀농 또는 귀촌인구로 대체 가능하지만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을 귀향할 수 있는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향민에게 고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향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교류 기회 확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출향민의 회갑, 칠순, 팔순 잔치를 몇 개 마을이 연합하여 마을잔치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마을 간 연합 교류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1. 연구 요약과 한계

본 연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성이 깊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선행연구의 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 관련 이론 검토부문에서는 일반적인 커뮤니티(공동체)의 개념과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커뮤니티 개념을 구분해서 정리하였다. 또한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과 농촌마을 커뮤니티의 고유한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 충남지역 농촌마을 커뮤니티 실태 분석에서는 현지 마을조사, 인터뷰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마을의 커뮤니티 조직의 존속 여부, 커뮤니티 활동 실태, 마을 공동자산 현황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농촌마을의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농촌마을 커뮤니티의 중요성과 최근 들어 커뮤니티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들을 심층 인터뷰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제4장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우수 사례 분석에서는 국내는 물론 국외(일본)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수 사례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사업)에 의한 활성화 사례와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우수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상기의 조사,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재생) 전략을 제시하였다. 활성화 전략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지원책보다는 지역주민과 외부 주체와의 연계 전략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전략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요약과 정책 제언으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향후 보완해야 할 연구 과제로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주체로서 외부 주체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결론해서 제시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연계하고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해 보다 구체

적이고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요소로서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의 기본적 행태와 중요성만을 언급하는데 그쳐 사회적자본을 농촌마을 내 축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전략 제시도 앞으로 필요한 연구이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필요하기에 이에 관련된 충청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연구과제의 추진이 요구된다.

2. 정책 제언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농업소득 불안정 및 농산물의 시장 개방화 등 농촌, 농업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지만 농촌마을의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농촌마을 커뮤니티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충청남도의 농촌마을 커뮤니티 기능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현재 농촌마을 실정에 적합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들이 충청남도 농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마을 커뮤니티 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분석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농촌마을 커뮤니티 문제는 거시적 관점이 아닌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보다 심층적 조사가 요구된다. 수천 개에 이르는 충남 농촌마을을 전수 조사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유형과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충청남도, 시군은 물론 충청남도의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충남연구원 내 중장기 전략연구과제로 수행하는 방안과 시군 정책협력과제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한계마을³⁶⁾로 분류되는 농촌마을에 대한 특별한 정책 또는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농촌마을이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타당하기에 농촌마을 커뮤니티가 소멸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책과 지원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

36) 한계마을 관련 연구는 충남연구원 조영재 박사, 윤정미 박사 등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음

셋째, 도시민을 비롯하여 농촌지역 외 주체들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매년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발표³⁷⁾되고 있다. 하지만 머릿속의 의식만이 살아있고 실제로 농촌지역을 위한 행동(활동)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지역대학들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립농업과학원(2017), 『농촌마을 공동체문화의 가치와 활용』 농촌진흥청
- 김수중 외(2002),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학사
- 박동진(2017), 「마을 공동재산의 이해와 마을재산 찾기」 『마을독본 창간준비 2호』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방세라(2014), 「농촌마을의 공동이용시설 활용실태조사를 통한 재생 전략」 한국농촌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신명희(2000), 「한국의 도시공동체 운동의 현재와 전망」 한국도시환경연구센터
- 서천군(2018),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 방안」
- 유학열(2017), 「일본의 한계마을 정책 사례 분석」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 유학열(2008), 「일본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지역재생사업의 실태 및 특징」 월간 자치발전
- 이수행(2015), 「경기도 농촌공동체 발전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이종수(2008), 『한국사회와 공동체』 다산출판사
- 이해준(2009), 『조선시대 촌락공동체의 제의, 놀이』 한국사 시민강좌
- 임은진(2010), 「지속가능한 촌락에 대한 고찰: 충남 홍성 문당리 사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 장수찬(2015),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알아야 할 28가지』 충남연구원 현장총서 002, 그물코
- 정경희 외(2014), 「일본 한계취락의 인구감소 대책방안 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3)

〈외국문헌〉

- 林直樹(2010) 외 『철퇴의 농촌계획』 학예출판사
- 유학열(2003), 山村集落における活性化要因に関する考察, 일본농촌계획학회지
- 유학열(2004), 山間地域における住民活力の評価に関する考察, 일본농촌계획학회지
- NIINUMA Shiori(2009), "Considerations on the Maintenance of Village Functions and the Sustainability of Residents'Daily Lives at "Marginal Settlements", E-Journal GEO Vol.4(1)
- 磯野巧(2013), "農山村地域における集落機能の存続基盤", 地域研究年報 35
- 農村開發委員會(2001), 『農村整備用語辭典』

長谷川昭彦(2004), 『농촌후루사또의 재생』, 日本經濟評論社

大西隆 외(2011), 『集落再生』, きょうせい

山下祐介(2013), 『限界集落の眞實』, ちくば新書

山下祐介(2014), 『地方消滅の罨』, ちくば新書

부록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 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2018년 전략연구과제로 “충청남도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 활성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농촌마을의 공동체 활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해주신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유학열 연구위원 (041-840-1201)

1 기본 항목

1-1. 귀하가 사시는 마을의 기본 현황

| | | | |
|-------------|---|-------------|---|
| 마을 이름(행정리) | | | |
| 가구 수 | 호 | 인구 수 | 명 |
| 10년간 귀농가구 수 | 호 | 10년간 귀촌가구 수 | 호 |

1-2. 지난 10년 전(前)과 비교하여 마을 인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 | | | | |
|-------|----------|----------|----------|-------|
| 계속 감소 | 증가하다가 감소 | 거의 변동 없음 | 감소하다가 증가 | 계속 증가 |
| | | | | |

1-3. 지난 10년 전(前)과 비교하여 마을 가구 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 계속 감소 | 증가하다가 감소 | 거의 변동 없음 | 감소하다가 증가 | 계속 증가 |
|-------|----------|----------|----------|-------|
| | | | | |

2

마을의 경제 조직 활동

2-1. 아래 보기 가운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직을 모두 골라 해당 번호에 O표 하세요.

| 보 기 | | |
|---------------|----------|------------------|
| ① 수리계 | ② 마을금고 | ③ 저축계/쌀계 |
| ④ 새마을영농회 | ⑤ 작목반 | ⑥ 산림계/어촌계 |
| ⑦ 영농조합법인 | ⑧ 농업회사법인 | ⑨ 마을기업, 농촌공동체 회사 |
| ⑩ 협동조합(농협 제외) | ⑪ 사회적 기업 | ⑫ 들녘경영체 |

2-2. 아래 보기 가운데 예전에는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없어진 조직을 모두 골라 해당 번호에 O표 하세요.

| 보 기 | | |
|---------------|----------|------------------|
| ① 수리계 | ② 마을금고 | ③ 저축계/쌀계 |
| ④ 새마을영농회 | ⑤ 작목반 | ⑥ 산림계/어촌계 |
| ⑦ 영농조합법인 | ⑧ 농업회사법인 | ⑨ 마을기업, 농촌공동체 회사 |
| ⑩ 협동조합(농협 제외) | ⑪ 사회적 기업 | ⑫ 들녘경영체 |

3

마을의 사회 조직 활동

3-1. 아래 보기 가운데 현재 존재하는 조직을 모두 골라 해당 번호에 O표 하세요

| 보 기 | | |
|---------------------|-------------------|-----------|
| ① 마을회(총회, 대동회, 자치회) | ② 노인회 | ③ 청년회 |
| ④ 부녀회(부인회) | ⑤ 향우회 | ⑥ 새마을회 |
| ⑦ 농민회 | ⑧ 친목계/동갑계/놀이계 | ⑨ 동호회(취미) |
| ⑩ 혼인계/상조계 | ⑪ 마을개발위원회(사업추진조직) | ⑫ 귀농귀촌자모임 |

3-2. 아래 보기 가운데 예전에는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없어진 조직을 모두 골라 해당 번호에 O표 하세요

| 보 기 | | |
|---------------------|-------------------|-----------|
| ① 마을회(총회, 대동회, 자치회) | ② 노인회 | ③ 청년회 |
| ④ 부녀회(부인회) | ⑤ 향우회 | ⑥ 새마을회 |
| ⑦ 농민회 | ⑧ 친목계/동갑계/놀이계 | ⑨ 동호회(취미) |
| ⑩ 혼인계/상조계 | ⑪ 마을개발위원회(사업추진조직) | ⑫ 귀농귀촌자모임 |

4

마을 공동시설 활용 실태

4. 아래의 보기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입니다. 시설들의 유무, 시설 상태, 활용 상태를 체크해 주십시오.

| 구분 | 현재 존재 유무 | 시설 상태 | 활용 상태 |
|--------------|-----------|----------------|-------------------|
| 마을소유 토지(부동산)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양호 ② 보통 ③ 노후 | ① 적극 활용 ② 보통 ③ 방치 |
| 동네마당, 쉼터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양호 ② 보통 ③ 노후 | ① 적극 활용 ② 보통 ③ 방치 |
| 마을화관/경로당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양호 ② 보통 ③ 노후 | ① 적극 활용 ② 보통 ③ 방치 |
| 공동 창고(농기계)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양호 ② 보통 ③ 노후 | ① 적극 활용 ② 보통 ③ 방치 |
| 공동 육묘장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양호 ② 보통 ③ 노후 | ① 적극 활용 ② 보통 ③ 방치 |
| 공동 퇴비장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양호 ② 보통 ③ 노후 | ① 적극 활용 ② 보통 ③ 방치 |
| 공동 작업장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양호 ② 보통 ③ 노후 | ① 적극 활용 ② 보통 ③ 방치 |
| 농산물 가공시설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양호 ② 보통 ③ 노후 | ① 적극 활용 ② 보통 ③ 방치 |
| 농특산물 직판장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양호 ② 보통 ③ 노후 | ① 적극 활용 ② 보통 ③ 방치 |
| 마을 숙박·체험시설 | ① 있음 ② 없음 | ① 양호 ② 보통 ③ 노후 | ① 적극 활용 ② 보통 ③ 방치 |

5

마을주민 공동체 활동

5-1. 현재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 하는 일은 무엇인지요?

| 마을 청소 | 마을주변 풀베기 | 마을 잔치 | 마을 축제 | 없음 |
|-------|-------------|-------|-------|----|
| | | | | |

5-2.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서 항목별 마을 변화 정도를 체크해 주세요?

| 구분 | 10년 전보다 늘었다 (많아졌다) | 변함없다 | 10년 전보다 줄었다 (적어졌다) |
|-----------------------|----------------------------|------|----------------------------|
| 평상시 마을 주민들 간의 교류 | | | |
| 마을 주민 공동 활동(청소, 잔치 등) | | | |
| 마을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착 | | | |
| 마을 외(다른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 | | |

5-3.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하는 공동체 활동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하다 | 보통이다 | 중요하지 않다 |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유학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략연구 2018-00 · 충청남도 농촌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연구

글쓴이 · 유학열

발행자 · 윤 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8년 12월 31일 / 발행 · 2018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01(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000-00-0000-000-0 00000

<http://www.cni.re.kr>

© 2018.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